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6호

4-5



나는 아주 가난해도
그래도 행복한 편이다.
돈은 아내가 벌고
나는 놀면서 지내니까!

오십세살이니
부지런한 게 딱 싫고
그저 KBS 제1FM방송.

이 방송은
거의가 고전음악인데
고전음악광인 나는
그래서 행복의 진짜 맛이다.

막걸리 한 되 한 병을
매일같이 마누라가 사준다.
한 병을 정오에 사면
6시까지 가니 어찌 탓하랴?

나에겐 내일도 없고
걱정거리랑 없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찌 이기겠습니까?

행복은 충족이다.
나 이상의 행복은 없고,
욕망이라고는 없으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나의 행복〉, 천상병 시인(1930.01.29~1993.04.28)



CONTENTS

2026년 4-5월호

04 이달의 말씀 **깊은 영성의 선교, '진실을 말하기'** 김주용 위임목사

06 특집- 가정을 세우는 말의 영성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연못골 광장

13 1018예수사랑 **주일학교의 추억** 전하진 성도(고등부 3학년)

14 2030새벽이슬 **"다시 연동으로"** 강희수 성도(HI청년공동체)

15 345스팟 **가장 듣고 싶은 말** 임경선 집사(비전3구역)

16 살며생각하며 **아부지** 이경희3 집사(안국평창구역)

청년광장

17 HI청년공동체 **단기선교 안내**

18 HI청년공동체 **알차게 봄을 맞이한 HI청년들**

20 HI청년들 이야기 **이 땅을 사랑하신 주님의 발자취, 한양도성 순례길**

주님과 함께하는 삶

22 믿음의 스포츠인(3) **내려놓음의 영성, 최경주 선수** 오한빛 목사

24 궁금해요 Q&A(3) **믿음 안에 세우는 기독교인의 주식투자 자세** 방영민 장로

26 녹색교회 **"연동교회는 이제 녹색교회입니다"**

28 소그룹 탐방(8) **건강하게 운동하며 기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연지회'**

30 칭찬합니다(20) **"김현정2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31 연동 북하우스(25) **팀 켈러, 죄를 말하다**

선교

32 선교지에서 온 편지 **계몽선교로 세우는 콜롬비아 아이들 - 박재현 선교사**
34 중국어예배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나눈 감사**
35 필리핀예배공동체 **혜화동에서 시작된 우정과 제자훈련**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36 청소년주일학교
44 아름꿈방 책바자회
45 제9기 연동숲속아기학교
46 제65회 서울노회 어린이교육대회

연못골 사람들

47 5.6월 행사안내 / 이성희 원로목사 신간 안내, **〈The 궁금〉**
48 왓두유뽀리빙(8) **한국춤의 길 위에서 삶을 춤추는 김지영1 권사**
50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23) **은행원 홍혜림 청년**
52 새신자 어게인(26) **"이 땅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김태양 성도**
54 신협 일본 선교 여행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성지순례 - 연동신협 선교 여행**
56 지체들
77 연동복지재단
78 신협 현황, 목양위원회
79 연동컬러링

제목: 연동 HI청년공동체의 봄날
재료: 사진에 AI(ChatGPT)
제작일: 2026년 5월 20일
그림 내용: 부활주일을 맞아 HI청년공동체가 진행한 '부활절과 식목일 사진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한 작품을 AI로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제작자: 연못골 편집부



깊은 영성의 선교, '진실을 말하기'

예전에는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냉이나 쑥을 캐서 국을 끓여 주시면 어김없이 한 번은 반드시 흙이나 모래가 씹힐 때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외할머니와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해 주는 밥에는 종종 작은 돌이 있어서 "할머니, 밥에 돌이 있어요"라고 하면, "많지 않으면 잘 씹어서 먹어라"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든 곡물이나 채소가 세척이 잘 되어 나와 음식에 흙이나 돌이 섞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창 2:7), 흙과 가까울 것 같은데 밥을 먹을 때 모래와 같은 것이 입안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흙은 안 돼! 흙은 먹을 수 없어! 흙은 더러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흙을 거부하고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삶 속에 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점점 흙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도리어 서로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적 타락이 흙으로 돌아가려는 창조적 순리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스스로 하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은 흙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죄를 짓고 평생 죽을 때까지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는 저주를 받았고(창 3:17), 가인도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 땅을 피하여 유리(流離)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흙이었습니다. 흙과 함께 살았고 흙과 가까웠으며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흙으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바로 깨달을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만물의 회복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온전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기초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자가



김주용 위임목사

진정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험과 연구, 탐구와 증명의 기초가 되는 과학자의 기본을 지켜내야 합니다. 법관은 유스티티아 상, 곧 정의의 여신상처럼 편견 없이 법 앞에 만인을 평등하게 심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정치인은 플라톤의 '철인'(哲人)처럼 개인의 사욕을 버리고 오직 공공의 선과 국가의 미래만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흙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깨닫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가장 근원적인 흙의 삶 가운데 참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며 그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손에 흙을 묻히는 모습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흙을 밟아보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에서만 사는 자녀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출발점을 모르는 그들의 선택과 판단이 걱정이 됩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진실(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인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한낱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AI를 잘 하면 미래의 직업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전쟁이 끝나면 경제는 되살아난다고 많은 언론은 자신 있게 보도합니다. 이제는 주식에 투자해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고 AI통역기가 너무 잘 나와 이제 더 이상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에리히 프롬이 말한대로 "인간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근원을 진실되게 말하고 인식시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 곧 복음은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전하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기만 해도 구원이 이뤄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을 알게 하고, 진실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선교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교에도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감사, 칭찬, 인정, 화해, 돌봄… 우리 가정의 언어 점검

〈차례〉

1. 말이 가정을 세웁니다
2. 감사, 칭찬, 인정의 언어
3. 화해와 사과의 언어
4. 돌봄의 언어-사랑은 동사입니다
5. 오늘부터 시작하는 선포와 기도문



기획 및 취재, 기사: 박윤신, 임재철 기자, 박현미 편집장

말이 가정을 만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현실을 빚어내는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졌습니다. 이 거룩한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이자 영적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누는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을 빚어내는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추지만,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잠언 기자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잠18:21)라고 경고했듯, 가정 안의 언어는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언어의 성벽을 재건하는 비결, 5:1 법칙

가정상담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한 가정은 하루 동안 나누는 긍정적 말과 부정적 말의 비율이 최소 5:1 이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분주함과 피로가 쌓이면 이 비율은 쉽게 역전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말은 짧아지고, 짧아진 말은 대부분 지시, 비판, 불평이 되어 집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무너진 언어의 성벽을 재건하는 비결은 ‘예배의 언어’를 ‘가정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고백했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거룩한 언어가, 우리집 식탁 위에서, 거실 소파에서, 아이들 방문 앞에서 용납과 격려로 흘러가야 합니다. 당연함 대신 감사가, 비난 대신 격려의 언어가 스며들 때, 가정은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에 뿌리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은 말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일구어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한마디는 가족의 마음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거친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서 평화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잠시 은혜의 한마디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우리의 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때, 말이 가정을 세우는 창조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칭찬·인정의 언어



칭찬은 기술이 아닙니다. 칭찬은 시선입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칭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셨습니다. 그 시선을 가정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감사와 칭찬, 인정의 신앙입니다.

감사, 칭찬, 인정의 말이 필요한 세 자리

① **자녀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십시오. “100점 받아서 대단해”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가 아이의 내면을 더 깊이 세웁니다. 인정받는 자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의 의미도 더 쉽게 이해합니다.

② **배우자에게**: 당연한 것에도 말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일하고 오느라 수고했어요." 익숙한 것에 다시 감사하는 훈련이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③ **부모에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이 어색하다면, 구체적인 기억을 말해주세요. “어릴 때 아프면 꼭 안아주셨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구체적인 감사는 상대의 삶이 의미 있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연동교회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들었던 말 중 가장 감동 받았던 말들>

(5월10일~16일 동안 주일학교 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집)

부모들이 꼽은 한 마디

- “우리 엄마 아빠여서 좋아.” *-40대 어머니*
- “사랑해.” *-40대 아버지*
- (예전에) 딸이 아침을 늦게 먹어서 어린이집 등원과 출근이 늦어져서 야단을 쳤고 딸은 울었지요. 그래도 등원길에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40대 아버지(자녀는 현재 초등5학년)*
- (아이들이 고민이 있거나 부탁이 있을 때) “아빠~ 도와줘” 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좋습니다. *-40대 아버지*
- (현재 중1 아들이 8세 때 외할머니에게 쓴 편지 내용) “우리 엄마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40대 어머니*
-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40대 어머니*
- “사람들이 엄마 닮아서 예쁘대.” *-50대 어머니*
- 매일 아침 출근하며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딸, 감동이에요. *-60대 어머니*

자녀들이 꼽은 한 마디

- “레고 닌자고 사줄게”라는 말을 들을 때. *-초2, 남*
-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넌 최고야!” *-초5, 여*
-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시험이 끝났을 때) 꼭 안아주며 “수고했다!”는 말이 좋아요. *-초6, 여*
- “너를 믿어!” *-중2, 남*
- “사랑해~ 파이팅!” *-중3, 여*
- 지치고 힘들 때 부모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안아주실 때 힘이 납니다. *-고1, 여*
- “지금도 잘하고 있어!” *-고1, 남*

화해와 사과의 언어

"미안해"와 "괜찮아" 사이에서

화해는 용서에서 시작하지만, 입을 여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 한, 가정 안의 화해는 반쪽짜리로 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사과의 세 가지 요소

진심어린 사과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① 구체적으로: "내가 그날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됐어." ② 변명 없이: "내가 그랬던 건 맞아. 그때 내 상황이 어땠든 간에." ③ 회복을 담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어떻게 하면 네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나눔1] 저희 집에선 주일 아침마다 예배시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갈 준비를 일찍 마치는데, 남편은 늘 늦습니다. 예배시간에 아이 손 잡고 기도하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화난 마음을 그대로 끌고 왔나…*' '옳은 방식'을 지키는 것과 '관계를 지키는 것'.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까요?

> 예배당에 오기 전, 현관에서 한 마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함께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 주는 것, 그것이 가정 안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나눔2] 결혼 전, 아직 며느리도 되기 전의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근무하시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반강제로 가입하게 하셨어요. 그 첫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어머님께 전화 한 통 드리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머님은 성품이 강하시긴 해도 참 고우신 분인데, 그 한 번의 사건이 관계의 문을 꼭 닫아 버린 것 같아 답답합니다.

> 처음부터 깊이 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래 닫힌 마음의 문은 거창한 대화보다 작은 말 한마디로 열릴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안부를 묻는 이 짧은 한 마디가, 닫혀 있던 관계의 첫 번째 빗장을 조용히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짧고 소소한 접촉들이 따뜻하게 계속 쌓이면, 닫혔던 문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돌봄의 언어-사랑은 동사입니다

돌봄은 희생이 아닙니다. 아픈 가족에게 “물 가져다줄까?”, 지친 부모님에게 “오늘 어떠셨어요?”, 멀리 사는 자녀에게 “별일 없지?”라고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돌봄의 언어입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 장애 가족을 곁에서 지키는 형제,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 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수고했어요”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말을 먼저 건넬 수 있을 때, 돌봄은 고립된 짐에서 함께 지는 사명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은 결국 동사입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서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은 감정이 충만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로 결심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나눔3] 시부모님은 신앙이 참 깊으십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에도 늘 일찍 도착하시고요. 다만 예배 후 “오늘 다 같이 점심 먹자~”가 거의 매주입니다. 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어린 아이 챙기다 집에 돌아오면 오후 3시. 속으로는 ‘주일 오후만큼은 좀 쉬고 싶다…’ 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격주로 부모님과 식사하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주일’과 ‘가정을 돌보며 쉬는 주일’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함께함”이 사랑이라면, “쉼을 지켜주는 것”도 같은 사랑입니다. 부모님께는 ‘거절’이 아니라 “더 기쁘게 만나기 위한 리듬”으로 설명하시고, 지금처럼 격주로 만남의 질을 지키는 선택은 충분히 건강한 균형입니다.

[나눔4]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자주 엇나가 속상하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믿음의 씨앗은 이미 같은 곳에 있습니다. 논쟁보다 이해와 공감의 대화를 먼저 쌓아가면, 관계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교회 이야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 마음 곁에 함께 있는 것이 때로 강한 전도가 됩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선포와 기도문

주제별로 정리한 말씀과 기도문을 오려 벽에 붙여 두거나 가지고 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말의 창조성과 권세를 날마다 되새겨 보십시오. "사랑해요!" 한 마디가 가정을 살립니다. 특집에 도움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가정의 회복과 평안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수기 6:24-26)

[선포 기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과 불안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보금자리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 자녀의 앞날을 향한 축복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편 121:3, 8)

[선포 기도] 자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며, 시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 재정과 일터의 형통

[말씀]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시편 128:2)

[선포 기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터전과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풍성함을 주시어,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 질병과 아픔의 치유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선포 기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세포와 조직, 뼈와 관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 깨어진 관계의 회복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2)

[선포 기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오해와 상처로 인해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내 안에 미움과 서운함은 떠나가고,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그리고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극적인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 문제 해결과 새로운 기회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사야 43:19)

[선포 기도]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문제를 마주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모든 닫힌 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 광야 같은 삶에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을 선포합니다.

♥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편 73:28)

[선포 기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영적 영민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제1순위가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깊은 친밀함의 복을 누릴지어다.

♥ 평안과 보호하심

[말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시편 121:6-7)

[선포 기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출입하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불성곽을 둘러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재앙,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실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의 중심을 굳게 붙잡아 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일학교의 추억



전하진 성도
(고등부 3학년)

교회 마당을 지날 때면 저의 어린이 시절이 생각납니다.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때까지 교회 마당에서 주일 오후 늦게까지 공놀이 등을 하며 친구들, 형들과 동생들이랑 놀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비가 오는 날만 빼고 거의 매주 놀았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등부 2학년까지는 코로나로 교회를 나가지 못했고, 다시 매 주일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는 주일 오후에 함께 놀던 친구들이 서먹해졌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여름과 겨울 성경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추억, 노회대회·서울시대회·전국대회에 참가하려고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예상문제를 매 주일 풀고 대회 날 성경고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추억도 떠오릅니다.

지금 저는 고등부 3학년으로, 주일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일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될 때도 많아졌습니다. 고등부 찬양팀에서 드럼을 맡고 있지만 연습 시간에 늦기도 하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종종 빠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아쉽고 그랬는데, 요즘엔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이면 청년부에 가야 하는 성인이 된다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으로 마지막을 보내는 올해가 더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저에게는 초등부 때까지의 주일학교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추억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후배들에게 주일학교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주일학교의 추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에 엄마가 올려주는 말씀과 기도문을 읽으며,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모두 연동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주일학교에서 소중한 추억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시 연동으로”



강희수 성도
(HI청년공동체)

안녕하십니까, HI청년공동체 부총무로 섬기고 있는 강희수라고 합니다. 요즘 HI청년공동체에서는 연동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닌 성도들을 ‘연동키즈’, 줄여서 ‘연키’라고 부르곤 합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강사겸 장로님, 최은복 권사님 아래에서 태어난 은혜로, 어릴 때부터 연동교회에 다녀 ‘연키’입니다. 아빠의 해외 발령으로 유치원 시절 이집트에서의 3년, 학창 시절 캐나다에서의 5년을 보내며 연동교회와 떨어져 있었음에도, 늘 저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해주시고 반겨주시는 집사님들 덕분에 그 어느 곳에서보다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순탄할 것 같던 저의 신앙생활은 스무 살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좋은 기회로 유년부 봉사를 시작했지만, 제 의지보다 주변의 권유로 인해 시작했던데다 세종에서의 대학 생활을 병행하며 체력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 저는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무너졌고,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결국 조용히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음에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 의지로 스스로 가고 싶을 때 돌아가자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이겨낼 수 있다는 교만함 속에 살아가다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그제야 저는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며 큰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이었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한없이 어색한 사이였지만, 어느 날 접하게 된 성경 구절을 보고 감동을 받아 매일 묵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메모앱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지난 신앙생활이 부끄러울 만큼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묵상을 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도 성경을 읽고 싶어진 마음도 결코 제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부끄러운 제 과거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더 크신 계획이라고 믿게 되었고, 평생 성경을 읽지 않던 제가 매일같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탕자의 삶을 살아가던 때에 많은 이들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청년부 형, 누나들, 유년부에서 함께 섬기던 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연락과 기도를 외면했음에도, 돌아온 저를 기뻐 반겨주신 분들께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저 또한 공동체를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붙잡아야 할 차례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떠나 돌아오기를 망설인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이제는 단순히 ‘돌아온 탕자’에 머무르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연키’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저의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



임경선 집사(비전3구역)

밤늦게 학원이 끝난 첫째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 녹초가 된 아이에게 괜히 장난을 걸어봅니다. “엄마 진짜 좋은 엄마지 않냐, 이 시간에 데리러 오고?”, “엄마는 잔소리 없고 쿨하지! 인정?” 돌아오는 건 “응, 그래”, “그런 거 같아” 시크하고 무미건조한 대답 뿐입니다. 영혼을 담아 대답해 달라는 말과 함께 룸미러를 슬쩍 보면 심드렁한 말투와 달리 ‘씨익’ 웃고 있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웃음이 터집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첫째와 곧 사춘기에 들어설 둘째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하며 다가갈 때와 지켜볼 때를 저울질하는 요즘입니다. 감정의 큰 기복 없이 평안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혹시 내가 너무 무관심한가? 반대로 너무 극성인가? 조심스럽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원망보다는 ‘그래도 참 좋은 엄마였다’고 기억되고 싶기에 내 본래 성격이 아닌 ‘성품’으로 아이들을 대하려 노력합니다.

문득 십여 년 전, 매일 아침마다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출근 버스를 타러 뛰어가던 골목길이 떠오릅니다. 골목 끝을 돌면 겨우 보이던 우리집 베란다 창가, 그곳엔 다섯 살, 두 살이던 어린 두 아들이 작은 손으로 창틀을 꼭 붙잡고 서 있다가 골목을 돌아 제가 보이는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고 첫째는 그 먼 거리에서 있는 힘껏 목청을 높여 외치기 시작했지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 힘들어도 힘내고 빨리 와!”

형을 따라 창틀을 붙잡고 제가 안 보일 때까지 크게 외치는 두 살배기 둘째의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지면 그 골목 끝에서 아이들에게 몇 차례 힘차게 손을 흔들어주고 출근을 하면서 아이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응원에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눈물을 삼키며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도 선하게 살아야겠다’고 단단히 다짐도 했었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난 먼 훗날에도,
제 마음속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야!”

아부지



이경희3 집사
(안국평창구역)

7남매를 슬하에 두셨지만
큰소리 한번 안 내시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막내딸
이름도 안 부르시고 존중해주셨다

막둥이 아들 수박 먹는 쩝쩝 소리에
소리없이 코만 실록이며 미소 짓던 모습
평생 흐트러짐 없이 단추 하나 풀지 않으셨지

귀하디귀한 셋째 딸래미
하필 없는 놈 만나서 고생할 때
소리없이 웃으시며 내밀던 사과 봉지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고생 끝에 낙(樂) 온다니 참고 살아라”
그 아부지가 오늘따라 사무친다

아부지가 좋아하던 차무를 통으로 먹어보고
숯불 갈비에 물냉면을 삼키노라니
아프다 못해 쓰디쓴 눈물이 올라온다
그 흔한 참외, 냉면도 실컷 사드리지 못했으니
어이 할꼬, 이 천추의 한을!

그저 화초에 물 주다
아부지 무한 사랑이 그리워 불러본다
아부지 ~~~ 아부지!

“무엇보다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거라!”

귀에 쟁쟁한 그 말씀 지침으로
오늘만 슬퍼하고 내일부턴 웃으리라
나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있기에
내 자식이 슬퍼하는 건 더 못 볼 듯하여
애써 웃음을 터뜨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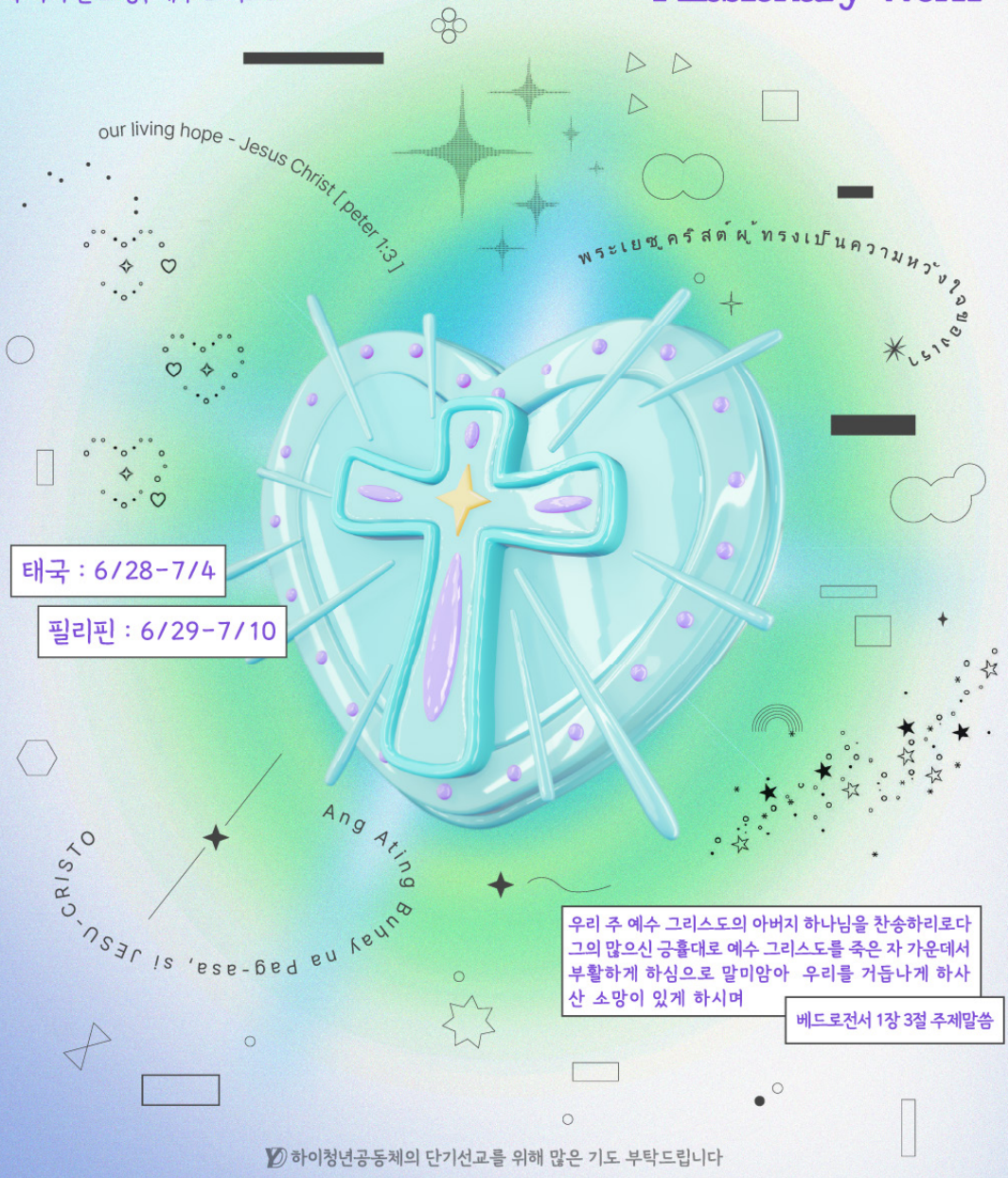
오래 될수록 빛나는 사랑은 내리내리 간다

Our Living Hope, Jesus Christ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연동교회 하이청년공동체 단기선교

Hi-people Community Missionary Work



태국 : 6/28-7/4

필리핀 : 6/29-7/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주제말씀

하이청년공동체의 단기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차게 봄을 맞이한 HI청년들

| 한양도성 선교 순례





3월 28일(토), 약 60명의 청년들과 제직들이 함께 한양도성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3시간 동안 흥인지문에서 시작하여 총 4개의 산을 넘어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옥성삼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 서울의 명소들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기독교 역사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힘든 순간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7명의 청년들이 모든 코스를 완주했으며, 특히 이번 순례길 걷기는 선교를 위한 펀딩과 함께 진행하여 이 땅과 선교지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 러브릿지온



3월 21일(토), 4월 25일(토)에는 종로 인근 지역 어르신들께 생필품과 먹거리를 나눔하는 러브릿지온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는 1여전도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과 장년 세대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향한 관심을 지속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HI청년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또래 모임



3월 29일(일)에는 셀 모임 시간에 또래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잘 몰랐던 같은 나이의 청년들끼리 모임으로써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래 동역자들끼리 더 깊은 교제가 지속되어 하나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플로깅 데이



4월 4일(토)은 플로깅 데이로 지정하여, 주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마음으로 교회 주변 환경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각 조마다 혜화, 동대문, 을지로, 종묘로 흩어져서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을 보호하고, 걸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비 예보가 있었지만, 맑은 날씨 가운데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부활절, 식목일 사진 콘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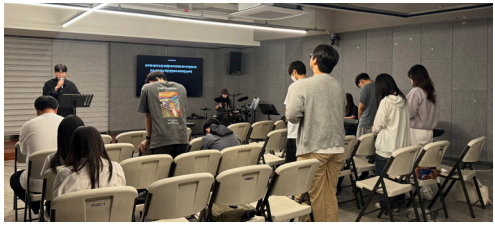
4월 5일(일)에는 부활절과 식목일을 맞이하여 각 셀 별로 컨셉을 맞추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셀끼리 더욱 친밀해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월 12일(일)에는 마당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사진 투표를 진행하여 온 세대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었으며, 1,2,3등 셀에게는 셀지원금과 함께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 성경캠프

4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1박 2일간 팀수양관에서 '예수를 읽다, 예수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사복음서를 함께 읽어나가는 상반기 성경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주용 위임목사님과 박주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경과 저자에 대해 알아가고, 특별히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나눔지와 퀴즈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나가며, 말씀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금요기도회



3월 13일과 27일, 4월 10일과 24일, 5월 8일에는 가나의집 아가페홀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격주에 한 번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 교회와 공동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 셀 리더 모임



3월 14일과 21일, 4월 4일과 25일 토요일 오전에는 가나의집 아가페홀에서 셀 리더들이 모여 박주안 목사님과 조창우 전도사님의 인도하에 찬양과 기도, 양육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와 셀모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리더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 풋살, 농구 교제



4월 12일(일)에는 토모 풋살피치에서 풋살 경기를, 5월 1일(금)에는 한성대 낙산관에서 농구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통해 육의 강건함을 다지고,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서로가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신 주님의 발자취, 한양도성순례길



봄기운이 태동하던 3월 28일(토), HI청년공동체는 오전 7시, 흥인지문에 모였습니다. 사순절을 기념하며 걸었던 이 순례코스는 총 22km. 흥인지문에서 시작해 광희문, 남산, 숭례문, 인왕산, 자하문, 백악산, 혜화문, 낙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 걷기가 아닌 옥성삼 박사님의 기독교 역사 해설을 듣고 각 산 정상에서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한국복음의 역사를 배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단기선교 펀딩도 함께 진행되어 세 곳의 목표지점에 도달한 인원만큼 선교비가 적립되었습니다. 장장 13시간, 60명의 청년들과 제직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걸었고, 27명의 청년들은 그 길을 완주했습니다. 산성길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되는 공동체'를 몸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남다은 기자

HI청년공동체
한양도성순례 동영상





♥ 순례 청년 소감



최형규 청년(완주)

다양한 사역들로 분주해지는 여름, 올해도 어김없이 선교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선교 후원을 위한 '한양도성 선교순례길' 펀딩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한양도성길은 네다섯 번 정도 완주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해설을 들으며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걷는 순례길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에 개인 일정을 뒤로하고 참여했습니다. 성 안팎을 가르는 경계를 따라 선교순례길을 함께 걸으며, 당시 시대상과 역사적 배경을 담은 박사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는 것은 귀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각 목적지마다 선교를 위해, 나라와 세상을 위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어 내려가며 순례길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걸었던 선교순례길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며, 함께 땀 흘리며 걷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위임목사님과 제직분들의 수고와 헌신, 섬김 덕분에 부족함 없이 풍성한 순례길을 걸을 수 있어 감사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함께하기에 완주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청년들의 참여 덕분에 선교 펀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청년부의 단기선교를 위한 순례길의 발걸음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배턴을 이어받은 단기선교팀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며, 지난 한양도성 선교순례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김동현A 청년(부분 참여)

예배 후 한양 도성 순례 광고로 우리가 걷는 걸음들이 후원금으로 적립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보자는 마음이 생겨 신청했습니다. 순례 당일, 흥인지문에 모여 옥성삼 박사님의 순례길 일정설명 후 본격적인 코스가 시작되었고, 남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올 무렵, 눈앞에 펼쳐진 한양 도성의 성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성벽의 돌모양이 시대마다 다른 이유와 그 속에 담긴 땀방울 등 역사적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척박한 산세 위에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간절한 마음들을 떠올리니, 가파른 오르막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에벤에셀'의 성벽 같았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가파른 구간도, 함께 걷는 지체들이 있고 역사를 들려주시는 길잡이가 있기에 기쁘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산 정상에 도달해 지나온 성벽의 유려한 곡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사님의 해설 속 도성의 역사는 마치 살아있는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고, 깎이면 보수하며 600년을 버텨온 성벽처럼, 우리 청년들의 신앙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험하다는 인왕산 계단에서는 금세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정상에 올라 600년의 시간을 품고 선 단단한 성벽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험한 하산길, 다리가 후들거릴 때 제 곁에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주안 목사님, 김민성, 김보성, 그리고 이재호 청년이 건네준 손길은 몸을 지탱해 주는 도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휘청일 때마다 묵묵히 보폭을 맞춰주고 챙겨주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힘을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의 손길을 통해 공급하고 계셨구나."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과정에서 청년들의 사랑을 확인하며 저는 마음의 안식을 느꼈습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채워짐을 알게 되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 작은 간증이, 아직 망설이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함께 손잡고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음의 영성, 최경주 선수



따스한 햇살 아래 온 대지가 초록빛으로 물드는 5월입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빼곡히 돋아난 싱그럽고 푸르른 잔디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도 생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돋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들을 통해 이영표 선수의 '성실함의 영성'과 클레이튼 커쇼 선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나누었다면, 이번 호에서는 한국 골프의 개척자이자 레전드인 '탱크' 최경주 선수의 삶을 통해 '내려놓음의 영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프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힘과 욕심이 앞설 때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지만, 힘을 빼고 궤도에 몸을 맡길 때 공은 비로소 목표를 향해 곧게 날아가게 됩니다. 최경주 선수의 삶은 이 '내려놓음'을 훈련하는 연속이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자라 맨손으로 일하던 손으로 골프채를 쥐었던 그가, 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 PGA 투어에 입성해 한국인 최다인 8승을 거두며 우뚝 서기까지는 수많은 벙커와 거친 러프를 지나야 했습니다.

골퍼들에게 지형과 거리가 상세히 적힌 '야디지북'은 샷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나침반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자신의 영적 나침반을 세우기 위해, 야디지북 첫 페이지에 코스의 정보 대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적어, 내려놓음의 신앙을 매 순간 되새겼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영적 나침반은 그의 54번째 생일이었던 2024년 5월, KPGA 역대 최고령 우승의 신기록을 쓴 SK텔레콤 오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오한빛 목사

피 말리는 연장전, 그가 친 두 번째 샷이 해저드를 향해 날아갔을 때 지켜보던 모두가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공은 물이 아닌, 한가운데 있는 손바닥만 한 작은 러프에 안착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기량을 의지하는 대신,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 이 공은 당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샷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가 바라본 것은 눈앞의 우승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적힌 야디지북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힌 영적 야디지북인 '말씀'을 펴고 참된 조준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경주 선수의 '내려놓음의 영성'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최경주재단'을 통해 꿈을 잃은 아이들을 돕고 장학 및 구호 활동에 헌신하며 자신이 받은 축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골프는 혼자만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은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의 홀인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몇 번째 홀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은 인생의 해저드에 빠져 숨을 고르고 계신 분도, 거친 러프 속에서 길을 잃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성공이라는 좁은 홀을 향해 힘을 주고 서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올바른 조준점을 맞추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같은 현실의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의 필드 위에서 위를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시원한 '믿음의 샷'을 날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내려놓음의 영성'을 통해, 모든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세우는 기독교인의 주식투자 자세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평가되었던 한국 주식시장이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이와 같은 상승세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근길에 지하철에서는 많은 사람이 스마트 폰으로 증권회사의 앱을 보고 있고,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FOMO, Fear Of Missing Out)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는 가상자산, 주식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 상태도 크게 퍼져 있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하여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바람직한 투자 자세는 무엇일지 올바른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주식 투자가 필요한가요?

의학의 발달, 생활 수준의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소득 활동의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 축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산 축적 수단이었던 은행 예금의 금리가 크게 하락하여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라는 잠언 구절(30:8, 9)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절대 피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방영민 장로
(전 삼성선물 대표이사)

바람직한 투자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❶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한다.
헛소문을 믿고 하는 투자, 일확천금의 대박을 노리는 투자,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도록 하는 투자, 한 종목에 집중하는 소위 몰빵 투자는 투기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10% 정도로 잡고 공부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❷ 친구나 친척이 흘려주는 미공개 정보를 믿지 말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를 믿고 투자해야 한다.
증권사에서는 경제 상황과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가 많은데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면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품(ETF)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의 '투자 리딩방'의 정보를 믿고 투자하면 절대 안됩니다.

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다양한 산업,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
더 위험을 줄이려면 주가지수(한국의 KOSPI, 미국의 S&P 등)에 연동된 펀드 상품에 투자하면 됩니다. 투자 현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워렌 버핏의 유언인 "재산의 90%는 S&P 지수에 연동된 펀드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❹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Rebalancing)하라.
투자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❺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라.
인간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날짜를 정해 두고 정기적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❻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신경 쓰느라고 본업과 가정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주식투자할 때 유념할 한 마디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시도때도 없이 주식시장만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연동교회는 이제 녹색교회입니다”



주관처로부터 받은 현판

연동교회는 올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녹색교회네트워크에서 공동 주관하여 선정하는 녹색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녹색교회란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조직 등 교회 전반에서 창조세계의 회복과 보존에 앞장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교회로 선정되고자 수고한 환경보존팀 팀장인 민홍기 안수집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싣습니다.

Q 우리 교회가 올해 녹색교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A 우리 교회는 '2026년 녹색교회'에 선정되어 5월 19일(화) 환경주일 연합예배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2020년 정책당회에서 녹색교회 및 환경운동 소그룹 조직을 시작으로, 2024년 사회봉사부 안에 환경보전팀을 정식 제직부서로 신설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환경선교사 과정을 매년 실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교인 탄소금식 발자국을 실행하는 등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녹색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우리 교회의 약속이자 지향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색교회를 넘어 ‘더 녹색교회’, ‘더더 녹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보전하고 사랑하는 연동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녹색교회, 환경선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대부분 텀블러 사용하고, 일회용품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녹색교회와 환경선교사의 진짜 본질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환경선교사 강의 중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파손시킨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녹색교회와 환경선교사가 할 일도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Q 환경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앞장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잘 보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로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나요?

A 6월 13일(토)부터 5주 동안 환경선교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연동 교우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미 수강하신 분들께도 재수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년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선교사 후속 과정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 과정이 녹색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텀블러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플러깅, 디지털 게시판, 종이 사용 줄이기 등은 계속 진행됩니다. 에너지 절약 표시, 화단 관리와 부서들 별로 제안해주는 실천 방안을 모아 함께 실천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녹색교회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 교인들의 협력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 정리: 박현미 편집장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제43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5월 19일(화) 제43회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연동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를 주제로 드려졌다. 예배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박창규 목사의 인도로,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인 송진순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선포된 환경주일 선언문은 기후 붕괴와 전쟁을 “이중의 재난”으로 규정하고, 생태적 회심과 녹색교회로의 전환, 생명 네트워크 구축을 한국교회의 과제로 천명했다.

예배에는 한국YWCA연합회, NCCK,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한성공회 등 다양한 교단과 단체가 연대했다. 2026년 올해의 녹색교회로 연동교회를 포함한 16개 교회가 선정되었고, 연동교회를 대표해 김주용 위임목사가 상장과 현판을 받았다./ 박현미 편집장

건강하게 운동하며 기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연지회'



연동교회에는 건강한 운동과 따뜻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특별한 소그룹이 있다. 바로 골프모임 '연지회'이다. 연지(Golf)회는 단순히 골프를 즐기는 친목 모임을 넘어, 성도 간의 교제와 건강한 운동, 그리고 기부와 섬김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연지회는 2016년 12월 다시 시작되었다. 초대 회장은 김기성 은퇴집사가 맡았으며, 이후 이수진 은퇴장로, 박재천 장로를 거쳐 현재는 최영남 집사가 회장을 맡아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연지회는 매월 정기 라운딩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연지회의 시작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과거에도 '연지회'라는 이름의 골프 모임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조인찬 공로안수집사가 시각장애인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며 교회 안에 다시 골프 모임의 필요성과 열정이 살아났고, 이를 계기로 연지회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다. 당시 김기성 은퇴집사를 중심으로 여러 성도들이 뜻을 모으면서 지금의 연지회가 되었다.

연지회는 2017년부터 킹즈락CC에서 정기모임을 이어갔으며, 이후 여러 골프장을 거쳐 현재는 한양파인CC에서 안정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모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운동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지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부 문화'이다. 회원들은 라운딩 중 좋은 성적으로 파(Par)나 버디(Birdie)가 나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금으로 모으는 전통을 이어왔다. 회원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

회원들은 "골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운동하며 교제하고 나누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연지회는 오랜 시간 동안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함께 웃고 운동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정신도 깊어지고 있다.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여러 성도들의 추억도 연지회의 소중한 역사로 남아 있다.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난 성도들의 이야기도 회원들 사이에서 따뜻하게 기억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이어진 모임 속에서 연지회만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연지회 운영은 카톡 단톡방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입은 총무 박동진(dongjinae@hanmail.net)에게 메일을 보내면 된다. 단, 골프 레슨은 하지 않는다.
오늘도 연지회는 건강한 운동과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연동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골프라는 공통된 취미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연지회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유일 것이다.

/ 박동진 기자









“김현정2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찬양이 아이들의 삶에
소망과 간증이 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가족으로 활약

김현정2 권사님(신내구역)은 현재 중등부 찬양대 지휘 12년차로, 주니어콰이어 지휘도 10년째 맡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주일학교와 음악 쪽에서 섬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남득현 집사님은 지난해까지 3남선교회 찬양 인도를, 첫째(다은)는 중등부 교사 겸 중등부 다운찬양팀 싱어, 둘째(윤태)는 중등부 교사 겸 중등부 다운찬양팀에서 일렉 담당과 찬양 인도, 청년부 예람찬양팀에서 일렉을, 막내(다혜)는 중등부 찬양대와 주니어콰이어 단원으로 10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가족이라 불릴 만한 활동입니다.

12년의 헌신

권사님은 주일예배 말씀에 맞춘 선곡부터 직접 제작한 음원과 파트별 녹음, 파일 공유 등 사전 준비로 한 주 내내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음정과 발성법을 조절하는 맞춤형 지도법을 연구하며 새로운 찬양을 익히는 데도 열정을 쏟았으나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입으로 찬양함을 기피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음정을 잡지 못하던 아이들이 찬양을 즐기며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 학교 합창 지휘나 음악 전공자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답니다. 또한, 12년 전부터 찬양대로 활동하던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각 부서의 교사로 섬기며 연동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된 것과 다섯 식구가 각자의 달란트로 함께 찬양하며, 세 자녀 모두 각자 찬양 음원이 생기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은이는 남들 앞에 서기 부끄러운 시기임에도 중등부 다운찬양팀의 싱어로 지원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답니다. 윤태는 중등부와 청년부를 오가며 일렉 기타 연주와 찬양 인도자로 섬기는 과정이 체력적으로는 버겁지만, 그만큼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답니다.

앞으로의 소망

권사님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맡겨진 사역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세 자녀의 은사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찬양팀을 이루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마음으로 찬양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현정2 권사님과 그의 가족, 남스패밀리를 칭찬합니다.

/ 이경아 기자



팀 켈러, 죄를 말하다

팀 켈러 지음, 윤종석 옮김 / 두란노 / 2026년

내면의 위선과 세상의 고통, 그 근원을 추적하다

오늘날 '죄(Sin)'라는 단어는 외면당하거나 가볍게 취급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죄에 대한 고백이 형식화되는 이때, 우리 장로교 신앙의 뿌리인 개혁주의 구원관을 일깨우는 묵직한 서적이 출간되었습니다. 고(故) 팀 켈러 목사의 유작이자 그의 신학적 통찰이 집대성된《팀 켈러, 죄를 말하다: 세상 모든 문제 이면의 핵심》(두란노)입니다.

죄, '행위'를 넘어선 '존재의 왜곡'

장로교 전통의 핵심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죄를 단순히 '도덕적 규율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즉 우상숭배로 정의합니다. 돈, 명예, 심지어 종교적 의무조차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곧 죄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은, 마음 중심에서 세상의 안정을 갈구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찔러옵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오직 은혜'

사회적 분열과 갈등, 개인의 불안과 중독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는 정치·경제적 해법만으로는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거대한 구조 악부터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불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의 결과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은 죄의 비참함을 폭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자는 죄의 깊이를 처절하게 깨달은 자만이 십자가 은혜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선포는 개혁주의의 핵심 가치인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완벽하게 풀어냅니다.

[추천 합니다]

ㅇ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

ㅇ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는 청년: 세상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 해답을 찾고 싶은 분.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할 때 참된 회개와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 책을 통해 내면의 우상을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임재철 기자

계몽선교로 세우는 콜롬비아 아이들 - 박재현 선교사

콜롬비아에서 사역 중인 박재현·정은실 선교사는 빈민촌 무료학교 '꿈들의 집'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교육과 복음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사들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영양쌀 음료를 준비한다. 미국 선교단체의 지원으로 받은 영양쌀에 생강과 우유 등을 섞어 만든 음료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한 끼가 된다. 처음에는 삶은 달걀 하나가 가장 큰 영양식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해 청소년반 개설을 기다릴 만큼 사역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2019년 교실을 짓고 몰려든 아이들에게 가장 가성비 영양식은 삶은 달걀

'꿈들의 집'에는 콜롬비아 빈민층 아이들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난민 가정의 아이들도 함께 모인다. 국경을 넘어 걸어오다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생일조차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가는 아이들,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형제들도 있다. 선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고 삶의 희망을 품도록 돕고 있다.

콜롬비아의 공교육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교사 월급 체불로 인한 잦은 파업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를 오래 다녀도 읽고 쓰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발음조차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들은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많은 국제구호기관들이 지역에 들어와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 사역을 감당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전한다.

박 선교사는 한국이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한다. 한국은 복음과 교육의 혜택을 함께 경험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그 은혜를 다시 세계 선교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콜롬비아가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전했던 혈맹의 나라라는 점도 소개하며,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의 깊은 역사적 연결을 나누었다.

선교 현장은 결코 쉽지 않다. 도둑과 범죄가 많고 위생 환경도 열악하다. 그러나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교실이 세워졌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선교사들은 앞으로 청소년 교육과 기숙 통합시설 건축 등을 통해 더 깊은 돌봄과 교육 사역을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박재현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과 희망을 발견하도록 계속 사역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로이시넷의 언니 프란첼리스입니다. 만나면 항상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3형제입니다. 출석 잘하는 형제들이 수업에 안 왔는데 마침 길에서 만나 물으니 '옷을 세탁해서 없어서 못 갔어요' 합니다. 옷이 몇 벌 없거든요... 한국/미국 다녀올 때 무거워서 옷을 못 들고 오는 게 항상 가슴 아픕니다.





<기도 제목>

1. 길고 깊은 기도/경배의 시간을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도록
2. 4명의 교사와 학생들의 믿음과 가난한 삶을 보호해 주시도록
3. 청소년반 개설을 위한 좋은 교사를 만나고 기숙통합시설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4. 성경신학 세미나(BEE) 잘 진행되도록
5. 총 강도/비위생/위험한 운전의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사역하도록
6. 보철 치아가 약간 흔들려 불안한데 치료할 때까지 잘 사용하도록

여기서 잠깐! 콜롬비아 나라에 대해 알아보아요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중남미 나라로, 수도는 보고타이며, 주요 도시는 메데진, 칼리, 카르타헤나 등이 있고,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커피 산업으로 유명하지만, 빈부격차와 치안·교육 문제, 특히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과 빈민촌 증가로 아동·청소년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콜롬비아 선교는 무료학교, 급식, 청소년 교육, 의료 및 지역 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참전국으로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나눈 감사





5월 10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예배 후 유학생들의 축하송과 함께 부모님 같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타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에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고, 늘 기도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모습은 큰 위로와 본이 되었다.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관심 속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부모님들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2부 순서에서는 가나의 집에서 질문 쪽지를 뽑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 최근 감사했던 일과 힘들었던 일들을 진솔하게 들려주셨고, 어떤 분은 짧은 찬양 한 소절을 부르며 은혜를 더해주셨다. 이 시간을 통해 유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신앙과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세대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믿음의 세대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함께 기도한다.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WeChat ID : df7135

혜화동에서 시작된 우정과 제자훈련



제자 삼는 사명은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은 특정한 몇 사람이나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 곧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분명 교회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이 제자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CONNECT : Seeking Friendship(관계 맺기)입니다. 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더 넓은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한 기회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26일(주일)과 5월 3일(주일), 우리 필리핀예배공동체는 혜화동을 방문하여 지역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각자의 삶과 사업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하며 의미 있는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선물 나눔, 병원 심방, 상담 사역, 생일 및 기념일 행사 등 다양한 지역 섬김 활동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 안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심고, 교회가 세상 밖으로 시선을 향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결과 섬김의 사역이 서울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
Facebook : Abel Raby

〈 영아부 〉 부장 : 박윤신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5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어요(마 4:19)	사순절 4주, 말씀집중주일
	22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어요(막 5:41)	사순절 5주, 반별 나눔, 월례회&기도회
	29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요 3:16~17)	종려주일, 말씀놀이(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해요), 끼리끼리 엄마, 아빠 Day
4	5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기뻐요(마28:6)	부활주일, 4월 생일 축하(이윤슬), 말씀놀이(에그헌팅&꾸미기 활동)
	12	춤을 추며 찬양해요(삼하 6:14)	새친구 환영(류지안, 비즐리 태오), 말씀집중주일
	19	친구를 사랑해요(삼상 18:3)	반별 나눔, 월례회&기도회
	26	친구를 도와줘요(행16:14)	끼리끼리 엄마, 아빠 Day
5	3	새 영 ON AIR(겔 11:19-20)	온세대 예배(본당 3부), 마당잔치
	10	친구를 도와줘요(엡6:1)	5월 생일 축하(윤서원, 정해솔), 새친구 환영(나혜나), 어버이날 감사 커피차(예수프레소)

/ 박윤신 부장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해요!



새친구를 환영해요(류지안, 비즐리 태오, 나혜나)



부활주일 에그헌팅



어버이날 감사 커피차, 예수프레소



4월, 5월 생일을 축하합니다~(이윤슬, 윤서원, 정해솔)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5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마14:31~32)	손도장 십자가 만들기
	22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16:16)	플레이콘 십자가 만들기
	29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마21:9)	반별 말씀암송
4	5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요20:17)	부활주일 달걀 꾸미기
	12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 사람들(고전15:3~4)	짝짓기 찬양활동
	19	다시 오실 그리스도(벧전3:11~12)	애벌레 물감놀이
	26	나의 주님, 예수님(빌2:11)	반별 말씀암송
5	3	어린이주일 온세대예배	
	10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엡6:2)	어버이주일 카네이션 만들기

/ 정윤정 부장



쉿! 말씀집중



어버이주일 카네이션 만들기



손도장 십자가 만들기



플레이콘 십자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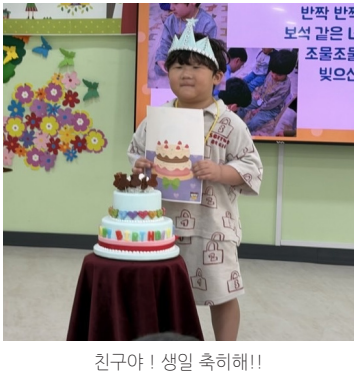


부활주일 달걀 꾸미기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5	물 위로 오라!(마 14: 31-32)	물 위의 베드로 전체활동
	22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 16:16)	세족식
	29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마 21:9)	종려주일 기획예배
4	5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요 20: 17)	부활주일 빈 무덤 꾸미기 전체활동
	12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 사람들(고전 15:3-4)	부활의 기쁨찾기 전체활동 /4월 생일 잔치
	19	다시 오실 그리스도(벧후 3: 11-12a)	공과활동
	26	나의 주님 예수님(빌 2:11)	말씀 암송 잔치 / 공과활동
5	3	어린이 주일 온세대예배	마당잔치
	10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엡 6:2)	5월 생일 잔치 / 공과활동

/ 최정미 교사



친구야 ! 생일 축하해!!



선생님 군대 건강히 잘 다녀 오세요



다시 살아 나신 예수님 우리는 기뻐요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 사랑 감사해요



우리는 미리 미리 예배 짱! 예배 시간 늦지 않아요

〈 유년부 〉 부장 : 이현승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5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마 14:27)	반별 말씀 활동(공과), 교사 월례회
	22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교회(마 16:16)	반별 말씀 활동(공과)
	29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1:9)	반별 말씀 활동(공과), 성찬교육
4	5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요 20:17)	반별 말씀 활동(공과), 4월 생일파티, 성례주일, 성찬예식
	12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고전 15:3-4)	반별 말씀 활동(공과)
	19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벧후 3:9-10)	봄나들이(반별 소풍)
	26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빌 2:5)	위임목사 순회예배, 학부모 간담회, 반별 말씀 활동(공과)
5	3	온세대와 함께하는 새 영 ON AIR(겔 11:19-20)	어린이주일 온세대예배, 서울노회 어린이대회(9일)
	10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엡 6:1)	5월 생일파티, 어버이주일 특별활동-효자손 꾸미기

/ 신유진 전도사



성례주일 성찬예식



위임목사 순회예배



봄 나들이



서울노회 어린이대회

〈 초등부 〉 부장 : 김태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5	두려울 때, 예수님을 불러요!(마 14:27)	공과활동
	22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마 16:16)	공과활동
	29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마 21:9)	공과활동
4	5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요 20:17)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달걀 꾸미기, 성례주일을 기념하여 첫 성찬식 진행
	12	모여라, 부활의 증인들!(고전 15:3-4)	3-4월 생일자 파티
	19	두근두근, 기다림의 시간(벧후 3:9-10)	공과활동
	26	복음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 가요!(빌 2:5)	혜화로 봄나들이
5	3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요!(막 10:16)	어린이 주일
	10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이에요!(엡 6:1)	어버이 주일

/ 전진석 교사



3-4월자 초등부 생일파티


예수님 얼굴로 달걀 꾸미기 1등한
기하윤 어린이


이주찬 어린이가 전도한 새 친구
류건우 어린이



서울노회 어린이대회 초등부 수상자들
(전원 수상)


초등부 첫 성찬식에 참여한
정호영 어린이


대학로로 봄 나들이를 다녀온 초등부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5	상반기 AWANA “신뢰와 불신”(민 14:9)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22	상반기 AWANA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신 4:2)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열림홀 환경 정리 (3/28)
	29	상반기 AWANA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수 3:17)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4	5	상반기 AWANA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수 6:4-5)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12	상반기 AWANA “지금 택해! 나야 얘야?” (수 24:15)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19	상반기 AWANA “왕이 없는 시대, 암흑의 시대”(삿 2:10)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온세대 예배 준비
	26	상반기 AWANA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삿 6:12)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5	3	온세대 예배로 휴무	
	10	상반기 AWANA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삿 16:28)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 윤종훈 부장



어와나 개회식



어와나 게임 준비



어와나 게임 - 달리기



핸드북 시상식



온세대예배 어와나 찬양 인도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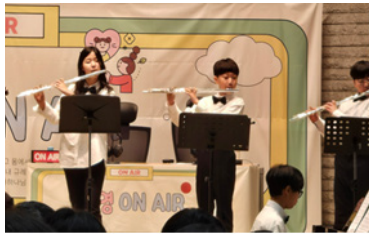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5	사막을 건너는 방법(마 14:24-32)	사순절 프로그램. 세례 입교 교육. 등하교 심방 프로젝트
	22	교인이세요?(마16:13-18)	사순절 프로그램. 세례 입교 교육. 신입 찬양팀 교육
	29	예수님처럼(사53:5)	사순절 프로그램. 세례 입교 교육. 신입 찬양팀 교육
4	5	뚝(마 20:11-14)	사순절 반별 프로그램 채점 및 시상. 성찬식
	12	부활을 아십니까(고전15:1-8)	신입 찬양팀 교육진행. 등하교 심방 프로그램
	19	중꺽꺼(벧후 3:11-12)	반별 공과모임. 등하교 심방 프로그램
	26	친구 아이가(빌 2:1-11)	온세대예배 찬양을 위한 싱어 연습
5	3	마음의 소리! ON AIR!(겔 11:19-20)	중등부 풋살 모임(5월 9일) 어린이주일 온세대예배와 마당잔치
	10	장수하는 비결(엡 6:1)	등하교 심방 프로그램 모집

/ 박성윤 부감



풋살장에서







온세대 예배 마당잔치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는 교사들



온세대예배 참여한 중등부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5	완전 럭키지저스잔앙(마14:22~33)	사순절 40-day 갓생챌린지 17~22일차 (성경 인물과 대화하기)
	22	모래알이 반석이 되는 자리(마16:13~20)	사순절 40-day 갓생챌린지 23~28일차 (성경 인물과 대화하기), 반별아웃팅(2학년A반)
	29	이 나귀는 이제 제 겁니다(마21:1~11)	사순절 40-day 갓생챌린지 29~34일차 (성경 인물과 대화하기) 반별아웃팅(3학년, 2학년B반)
4	5	가려진 눈, 불려진 이름(요20:1~18)	4일(토) 교사월례회 사순절 40-day 갓생챌린지 35~40일차(성경 인물과 대화하기) 부활주일 특별활동(에그헌팅, 전도달걀꾸미기)
	1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전15:1~8)	사순절 갓생챌린지 참여 우수자 시상-김한빛, 안민영, 고서율, 윤재윤
	19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 참으시는 때입니다 (벧후3:8~15)	교사찬양팀예배
	26	쥐실 수 있었는데(빌2:5~11)	기독교 가치관 교육 (주제:관계)
5	3	새 영으로 (겔11:19~20)	어린이주일 온세대예배-마음의소리! ON AIR
	10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엡6:1~3)	학년주관예배-3학년,떡볶이 파티, 교사월례회(9일), 찬양팀 아웃팅(9일)-뚝섬한강공원

/ 이승원 부감


사순절 갓생챌린지 참여 우수자 시상


부활주일 특별활동(말씀에그헌팅)


기독교 가치관 교육(주제관계)


고3 아웃팅


찬양팀 아웃팅- 난지한강공원


중간고사 격려 떡볶이 파티

아름꿈방 책바자회

3월 28일(토)~29일(주일) '아름꿈방 책바자회'가 진행됐다. 2024년 9월에 시작된 '아름꿈방 책바자회'는 이번이 네 번째 행사로, 교회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참여하는 '교인 및 교회 이웃을 위한 책바자회'로 진행하기 위해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열게 되었다. 첫 번째 책바자회(2024년 9월)와 두 번째 책바자회(2025년 3월)는 2주에 걸쳐 주일에만 열려서 주로 교인들이 많이 참여했고, 두 번의 수익금을 합친 230만 원은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안길태·박지원 선교사님의 페루 주일학교 공과교제 제작비로 보내드렸다. 세 번째 행사인 2025년 8월의 '이웃과 함께하는 책바자회'는 어린이와 학부모 전도를 목적으로 토요일에 열었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도 교회 이웃들과 대학로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연동교회를 소개하고 책바자회의 친환경적인 의미도 설명할 수 있었다.



교인 및 교회이웃을 위한 책바자회



주일학교 학생들 책읽기

네 번째 행사인 '교인 및 교회 이웃을 위한 책바자회'는 어린이전도단 취지에 맞춰 효제초, 서울사대부초, 혜화초 학생 및 학부모를 전도하기 위해 효제초 앞과 학교 주변 태권도 학원에 책바자회 홍보 및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특별히 3월 3일(화)에 새학기 초등학교 전도행사에서 알게 된 관장님이 태권도장에 오는 학생들에게 홍보 및 전도지 배부에 협조해주셨다. 이번 책바자회는 토요일에 '숲속아기학교'에 참석했던 아기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마당에서 책을 보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책기증으로 운영되는 친환경적인 '아름꿈방 책바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의 소중함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고, 책의 선(善) 순환을 지속하기 위해 책 판매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책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아름꿈방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양진실 집사(어린이전도단 단장)



숲속아기학교 아기들 책읽기

제9기 연동 숲속 아기학교

3월 21일(토)부터 4월 18일(토)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30분까지 가나의집 3층 영아부 예배실에서 '제9기 연동숲속아기학교'가 진행되었다. 이번 아기학교는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센싱 아기놀이터' 프로그램과 교구를 활용하여 예배 중 설교로 전했다. 예배 후에는 주차별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1주차와 5주차는 입학식과 수료식으로, 2~4주차: 대그룹 활동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움직이는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음률활동)'을 주제로 창조의 기쁨을 나누었다. 활동 후에는 정성껏 준비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아기학교 9기는 13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그리고 영유아유치부 전도사님들, 기도해주신 김주용 위임목사와 오한빛 주일학교 지도목사, 장로님 그리고 찬양과 율동, 반주, 식사 준비와 설거지, 뒷정리, 데코, 사진 촬영, 컴퓨터 작업, 아이들 활동 진행 등 매 주차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4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 박윤신 집사(연동숲속아기학교 숲장)



아장아장 입학식 레드카펫


흙속에서 감자를 찾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웃음이 멈추지 않는 아기학교


다같이~ 사랑합니다!


새가 되어 날아요

제65회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



5월 9일(토) 제65회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가 서울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주최로 약수교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현숙 권사(서울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박세환 안수집사(직전 회장)의 기도 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디모데전서 4:4-6)라는 제목으로 류범호 목사(서울노회 미래세대부장)의 설교와 축도 후 마쳤다.

종목	학년	이름	수상
성경고사	3학년	박호준, 최원	은상
	4학년	황윤하	동상
성경암송	3학년	허율	장려상
그리기	2학년	최수인	장려상
	3학년	남시원, 임채준	장려상
찬양율동	1학년	남여름, 이주아	금상
	2학년	김은우, 이지현	금상
	3학년	진현선, 기태현	금상
	4학년	기하윤, 이다희	금상
	5학년	김소연, 이지윤	금상
	6학년	박소은, 하도희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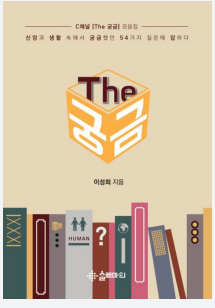
우리 교회에서는 유년부와 초등부의 19명 학생들이 4개 부문(성경고사, 성경암송, 그리기, 찬양율동)에 참가하여 전원 수상하는 귀한 결과를 얻었다. 입상자 중 금상, 은상 수상자 14명은 7월 4일(토) 장석교회에서 열리는 서울시어린이종합대회에 서울노회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후에 계속되는 '서울시어린이종합대회'와 '전국어린이대회'에서도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참가자 명단 및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진실 기자

5, 6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5	17일(주일)	스승의 주일,청년주일,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순회헌신예배(오후 3시, 본당)
	23일(토)	러브릿지_ON(溫)_청년
	24일(주일)	성령강림주일, 특별찬양간증(소진영 간사/마커스워십 인도자)집회(오후예배시, 본당)
	31일(주일)	삼위일체주일, 중등부 순회예배(학부모간담회)
6	4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7일(주일)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다문화의날 행사, 환경선교세미나(오후예배시, 본당)
	13일(토)	환경선교사과정 개강
	14일(주일)	사랑의 쌀 나눔(1)
	17일(수)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기도회(부용찬양대 주관)
	21일(주일)	영아부 순회예배(학부모간담회) 사랑의 쌀 나눔(2)
	24일(수)	실버아카데미 종강, 구역장성경공부 종강
	25일(목) - 27일(토)	데바레카 말씀영성수련회(강화수양관)
	27일(토)	러브릿지_ON(溫)_청년
	28일(주일)	북한선교주일, 상반기 새가족수료식(오후예배시, 본당), 당회(오후예배 후, 위즈덤하우스)
7	2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5일(주일)	맥추감사주일, 성례주일, 제직회(오후 2시 30분, 본당)
	11일(토)-12일(주일)	해피팀(영아,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12일(주일)	교회학교 교사주일, 기드온순방예배, 환경선교사과정 수료식(오후예배시, 본당)

이성희 원로목사 신간 안내, <The궁금>



이성희 원로목사의 신간이 작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기독교방송 C채널에서 방송된 'THE 궁금'에 MC로 참여해 매주 한 편씩 시청자들의 궁금증에 답변해온 내용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도 영혼이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등 신앙과 생활 속 궁금증 5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6가지 주제로 분류돼 실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생기는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인 성도, 신앙적 궁금증을 세상 학문이 아닌 신학적·성경적 근거로 풀고 싶은 분, 하나님의 깊은 영성적 세계를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께 <The 궁금>을 추천합니다./ 박현미 편집장

한국춤의 길 위에서 삶을 춤추는 김지영1 권사



김지영1 권사는 춤을 좋아하고 춤작업을 업으로 삼은 한국춤 전공자이다. 한국문화와 한국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실전 체험을 바탕으로 실제를 통한 이론의 구축, 이론을 통한 실제의 실현을 일삼는다. 한국문화전통을 중시하는 열린 한국적 사유방식과 춤신명으로 가득찬 활화산 같은 에너지와 친화력으로 한국춤의 밝은 전망을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

무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부채춤을 추는 리틀엔젤스 솔리스트를 보고 선화예술학교를 찾아가고 다음해 입학하게 되어 한국춤을 추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공연이나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2011 김지영의 늘춤"시리즈를 연동 열림홀에서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테마를 가지고 1년 동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공연이 끝나는 그 주부터 다음달 공연을 준비하는 삶이 춤이 되었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답니다. 그때의 그 열정을...

활동하고 있는 무용 분야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석사과정은 무용이론, 박사과정은 안무전공으로, 한국무용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춤을 추고자 해요~ 현재를 살아내는 안무자가 바라보는 시각을 한국춤의 호흡과 정서 그리고 미의식을 포함한 몸짓언어로 표현하려 합니다.

무용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몸짓언어는 가장 원초적이며 순박한 소통의 장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 놓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상기를 희망하죠.

그리고 춤은 보이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게 해요. 곧, '수직과 수평의 공간성', '중첩과 양감의 시간성', '압축된 밀도와 기운생동의 운동성'이 바탕이 된 신명과 해학을 담은 서사와 움직임의 역사를 풀어 고정된 표현 방식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춤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안무하고 있어요.

몸관리와 체력관리가 중요한것 같은데,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전통춤을 기본처럼 늘 추죠.^^ 전통춤 레퍼토리를 돌려가며 2시간 가량 일주일에 3번 이상 동인들과 연습하며, 공연 스케줄 소화 중에는 걷기를 많이 한답니다.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계속 춤과 공연을 하게 한 힘은 무엇인가요?

늘 포기의 연속이죠. 하지만 또 춤을 춥니다. 치유의 시간이자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자유로운 순간이기도 하기에 또 다시 공연을 하나 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공연 중에 다음 공연스케줄이 잡혀서 포기할 래야 포기가 안 된 것 같아요.ㅎㅎ

신앙생활과 무용 활동에 어떤 연결 고리 관계가 있는지요?

나에게 춤은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예배무용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연동실버아카데미에서 소소하게 몸다스리기반을 섬기고 있어요. 나아가 실버워쉽 댄스컴퍼니를 만드는 비전이 있어요~

공연 안 할때는 다른 취미나 활동이 있는지요?

타 분야의 예술 활동을 주로 보러 다녀요.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연극, 영화, 국악, 콘서트 등 다양한 예술품에 관심이 많아요. 즐기고 향유하며 휴식을 찾고 또 에너지를 얻게 되죠.

올해 공연 계획 알려주세요~

3월 27일: 인천시립무용단 2026 기획공연 “Inside Out : 안무가들” <유유화향(悠悠花香)> 안무

4월 28-2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내일을 여는 춤_김매자춤 연대기: 춤결을 짓다(계승과 변주의 미학)” <춤본I> 출연 포스트극장에서 진행되었어요.

5월 29일(금): 서울남산국악당에서 "무향춤페스티벌" <김매자작 산조춤_숨>을 춥니다.

9월 11일(금)에는 대전, 12월 5일(토) 국악당 공연이 잡혀 있고, 제가 몸담고 있는 창무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작품을 준비중에 있고 아직 하반기 대관 신청 중이라 아쉽게도 날짜가 안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려요~





신명과 열정으로 삶을 밝히는 김지영1 권사(잠원반포구역)와 함께한 “왓두유뽀리빙” 이었습니다.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은행원 홍혜림 청년

| 나의 은행원 도전기

처음부터 은행원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당시 전공도 행정학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7급 공무원을 목표로 학교를 휴학하고 약 2년 반 정도 수험생활을 하였으나 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원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7급 공무원을 준비하며 PSAT와 경제학을 가장 좋아했던 저는 막연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취업을 하는데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공공기관 입사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추천으로 은행에도 지원하게 되었고 운 좋게 첫 지원에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합격은 하지 못했지만, 은행 취업 과정을 경험하며 은행 업무가 저의 성격과 직업관과 일치한다는 생각을 했고 본격적으로 은행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까지 은행 취업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과 경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며 학생들 선생님들과 소통했던 경험, 해외 선교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교감했던 경험들을 통해 은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통 역량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과 동역자들을 주셨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국민은행 광교상현역지점에서 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대출과 퇴직연금, 외환 등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와 대표자들을 만나며 기업금융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나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29살에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남들보다 긴 대학 생활과 늦은 취업을 하며 수험과 여행, 교회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 중 의미 없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은행만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해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좋아서 했던 모든 활동이 결국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멈추지 마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금융권 취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10-3103-9773으로 연락해주세요.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이 땅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겸손하지만 단단한 김태양 성도(HI청년공동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교회가 삶의 일부였던 김태양 성도(24).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후,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2025년에 만난 연동교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그는 겸손과 진심을 담아 자기 길을 단단하게 걷습니다.

방황 속에 찾아온 부르심

"성인이 됐으니까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서울에서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못하기도 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후 그렇게 방황하며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년, 복학을 앞두고 마음 한 켠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마침 어릴 적 본가 교회 청년부 목사님의 소개로 연동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던 그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설교도, 찬양도 아닌, 타지로 파송되는 한 청년을 위해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나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따뜻하다.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무조건 여기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인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동에서 찾은 믿음의 가족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HI청년공동체 새가족셀 리더들이 그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매 주차마다 하나님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루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죠." 모태신앙이었지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신앙의 기초들을 HI청년공동체에서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지금도 각별합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끈질긴 질문에도 친절하게 응답해주셨고, 먼저 알아봐 주고 악수를 건네주는 배려들이 쌓여, 연동교회는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HI청년공동체 셀지원팀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빚어가는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태양 청년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겸손'입니다. "그동안 제가 다른 청년들을 보면서 믿음의 크기를 재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다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일과 평일의 제 모습 사이의 괴리가 항상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신이 되고 싶다는 겸손한 소망을 말합니다.

열 개의 학교를 꿈꾸는 청년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그에게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꿈이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CCC 활동을 하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렸고,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학교를 열 개는 세우겠다"는 것인데, 전자공학이라는 전문성 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얹어, 자신만의 길을 조각해가고 싶어합니다. 그 꿈의 첫 걸음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태국 선교입니다.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 마음먹었던 그대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기 위한 선교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시끄럽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다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태양 청년의 신앙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기에 그가 나아갈 길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성지순례 - 연동신협 선교 여행



고베 시립 외국인 묘지 예배당 앞에서

4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3박 4일), 연동신협 주관으로 위임목사를 비롯한 29명의 연동교회 조합원들은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신앙적 의미와 문화적 체험을 함께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뒤 아라시야마로 이동했습니다. 대나무숲과 '달이 건너는 다리(도월교)'라는 뜻을 지닌 도게츠교를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덴류지를 방문하여 불교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도게츠교(도월교)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가와라마치 성당



도시샤 대학 예배당



정지용 시비



윤동주 시비

둘째 날, 교토에서 야사카 신사와 마루야마 공원을 방문하며 일본 전통 신앙과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순종황제가 방문했던 장락관에서 커피를 즐기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기온 거리에서는 게이샤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정지용 시인이 세례 받고 출석했다는 가와라마치 성당과 도시샤 대학을 방문하여 정지용과 윤동주의 시비를 중심으로 신앙과 문학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도시샤 대학은 1875년에 설립된 명문 사립대학이다. 시인 윤동주와 정지용의 모교로, 캠퍼스 내에 이들을 기리는 시비가 세워져 있고 윤동주는 재학 중 체포되어 사망하였다,

셋째 날, 월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묘소가 있는 고베 시립 외국인 묘지를 찾아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와 연결된 깊은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바람의 교회를 방문하여 빛과 그림자의 신학적 상징을 체험하고, 기타노 이진칸 거리 투어와 하버랜드를 산책하며 서양식 건축과 바다 풍경을 즐겼습니다.



고베 시립 외국인묘지 예배당에서 예배



고베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서

마지막 날은 나라의 동대사와 나라마치를 관광하며 일본 고대 문화를 접한 뒤, 오사카 신사이바시와 난바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 정영희 권사(연동신협 상임이사)

선교 여행에 참여한 분들의 소감을 모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신앙적 의미와 문화적 체험을 균형 있게 담은 여정이었습니다. / 도시샤 대학과 성당 방문을 통해 신앙과 문학의 흔적을 기억하고, 고베 시립 외국인 묘지에서 선교사의 헌신을 추모하며, 바람의 교회에서 빛과 그림자의 상징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묵상했습니다. / 일본의 전통 신사·사찰, 게이샤 거리, 서양식 건축, 현대 건축까지 폭넓게 경험하며 역사와 신앙, 문화가 어우러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참가자: 김주용 위임목사, 이건희 목사, 고광숙, 고정자, 김경숙2 , 김선미1, 김예주, 김인혜1, 김진양, 김향임, 김현숙, 남두이, 남미열, 박숙향, 박혜영, 방선자, 백성기, 신언길, 신효덕, 오경숙, 이규성, 이영숙3, 임인수, 전중희, 정수연, 정영희, 최계숙, 최광순, 최광심 / 총 29명 (교역자 외 남녀, 직분 없이 가나다 순)

음악찬양부 수련회와 헌신예배



3월 21일(토) 음악찬양부(부장 김진양 장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못골, 부용, 게일, 여전도회 찬양대와 찬양선교단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본당에서 찬양선교단 연합찬양팀의 찬양과 김주용 위임목사의 "노래로 대접하라"(마7:12) 말씀과 함께 예배 드린 후 이성은 목사(게일찬양대 지휘자)의 특강이 이어졌다. 오병이어의 집에서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다음날 헌신예배 때 부를 연합찬양곡(내가 영으로) 파트 연습과 총 연습, 헌신예배를 위한 리허설로 진행되었다.

3월 22일(주일) 오후예배는 음악찬양부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김진양 장로의 인도로 여전도회찬양대 대장 김인혜 권사의 기도, 총무 우일애 권사의 성경봉독(욥1:20-22)에 이어 이진우 목사의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말씀 후 서기 박재경 집사를 대표로 모든 찬양대원들 헌신서약이 있었다. 헌신서약 후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고, 여전도회, 연못골, 부용, 게일 찬양대 순으로 찬양 후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헌신예배를 마무리했다. 각 찬양대원들에게 이틀 간의 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의미를 새기며 한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시간이었다. / 박현미 편집장

〈음악찬양부 헌신예배 특별찬양〉

찬양대	제목	작곡자
여전도회찬양대	복음 밖에 없습니다	손경민
연못골찬양대	전신갑주	이민경
부용찬양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Charles C. Converse
게일찬양대	주님은 늘 내 곁에	홍진영 곡, 지혜정·이성은 편곡
연합찬양대	내가 영으로	최덕신

가정사역 세미나



3월 29일(주일) 오후 3시, 평신도교육부(부장 강사겸 장로)의 기독교가치관교육팀(팀장 박미경 권사), 평신도학교(교장 강사겸 장로)의 새가정부(부장 박승란 권사)와 영성훈련부(부장 최은주 장로)의 상담팀(팀장 이혜석 권사)(이하, 연합팀)은 야베스의 방에서 '가정사역세미나'를 열었다. '거룩한 회복-세상을 이기는 힘, 구별된 가정의 정체성'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이명진 공로권사의 특강, 한상정 집사(새가정부 교무)의 연합팀 활동 소개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이진우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였다.

이명진 공로권사는 특강을 통해 연동교회 가정사역의 역사를 설명한 후 앞으로의 가정사역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제자화를 통한 가정사역, 이를 위한 가정사역 조직의 효율적 일원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미래세대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바로 세우기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이혜석 권사(상담팀 팀장)

게일찬양대 회지, <게일의 메아리> 창간

3월 29일(주일) 게일찬양대(대장 장선업 안수집사)는 대원들의 삶과 신앙을 잇는 모바일 소식지 <게일의 메아리>를 창간했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132년의 역사를 지닌 연동교회의 찬양대가 단순히 '소리'를 맞추는 곳을 넘어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중보기도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기획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매주 바쁜 연습 일정 속에 묻히기 쉬운 동료의 기도 제목과 일상의 고백들을 지면에 담아, 대원 간의 영적 거리를 좁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소식지에 담기는 '섬김과 나눔의 기록'들은 단순한 명단 공개가 아닌,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쉬운 '감사의 항목'들을 활자로 남겨 그 작은 물품들 하나마다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대원들의 크고 작은 간증을 찬양대의 역사로 보존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향후 <게일의 메아리>는 계간(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대원들의 인생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인터뷰 'Zoom-In'과 가족 대원이 많은 우리 찬양대의 특성을 살린 '가족 특집' 등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록이 쌓여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다시 찬양이 되는 선순환을 통해 게일찬양대가 더욱 단단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장선업 안수집사(게일찬양대 대장)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대청소 그리고 달걀 포장



다함께 특송하는 HI청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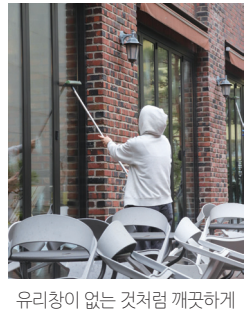
4월 4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날은 김형기 장로의 기도가 있은 후 HI청년공동체의 특송 '찬양하세'가 이어졌다. 특송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창조세계와 친구가 되라(롬 8:19-22)' 말씀이 있었다. 예배 후 다같이 오병이어의 집에서 공동 식사를 한 후 각 교구별로 흩어져 게일홀, 찬양대실, 오병이어의 집 등 교회 곳곳을 청소하고 교회 마당 화단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을 심었다. 청소 후 다시 '오병이어의 집'으로 모여 구운 달걀을 포장하며 부활주일을 준비하였다. / 박윤신 기자



교구별로 나누어 교회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



강단 미화로 부활주일을 준비해요



유리창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화단에 꽃화분을 심어요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절을 생각하며 정성껏 달걀 포장

바이브릿지 1기(성경 중심 조직신학반)



4월 1일(수) 성경중심 조직신학반 바이브릿지 1기가 개강하였다. 매주 수요일마다 김주용 위임목사가 강의하며, 총 7강 과정에 현재 11명이 수강 중이다. 수료는 6월 10일 예정이다. 강의는 다음과 같다.

제1강 : 하나님은 누구신가?(신론) 제2강 : 인간이란 누구인가?(인간론) 제3강 : 예수님은 누구신가?(기독론)
제4강 : 성령님은 누구신가?(성령론) 제5강 :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구원론) 제6강 : 교회란 무엇인가?(교회론)
제7강 : 종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종말론) / 김종은 기자

자매교회 순회예배 : 일신교회



4월 12일(주일) 오후예배는 국내선교부(부장 이호진 장로)가 주관하는 자매교회 순회예배로 드렸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예배다. 윤영란 권사(전도활동팀 팀장)의 인도로 하늘찬양팀의 찬양과 김경희2 권사의 기도, 조수남 권사의 성경봉독(창1:1-5) 후 게일찬양대가 '주님은 늘 내 곁에' 찬양을 했다. 이어서 일신교회(경기도 양평군 소재) 이철수 목사가 '본립도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후 일신교회 위해 다 함께 기도를 하고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이지원 기자

한식합동추모예식

4월 4일(토) 오전 11시 연동동산에서 한식합동추모예식을 드렸다. 상례부 부장 김진호 장로의 인도로 이병석 은퇴장로의 기도, 연동동산팀 팀장 김이선 권사의 성경봉독(시편 62편 5-7절) 후 오한빛 목사의 "소망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말씀과 축도, 이어서 강철민 장로의 광고로 예배를 마쳤다. / 김종은 기자

본당 카펫 청소

4월 23일(목)과 24일(금) 양일간 본당 카펫, 장의자 청소와 더게일홀 의자(페블릭)를 '월드베스트크린' 업체에서 맡아 청소했다. 업체에서는 카펫에 묻은 커피얼룩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 김종은 기자

제210회 서울노회

4월 23일(목) 제 210회 서울노회가 신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류관식·박종서·박은화·방영민·박재천·여명선·김성영·강사겸·최현수 장로가 총대로, 언권회원으로 이성희 원로목사와 최홍택·오세정·김대진 은퇴장로가 참석했다. 이번 노회에서 제111회 총회 총대로 김주용 위임목사, 방영민·최현수 장로가 선출되었다. / 김종은 기자

부활주일예배



4월 5일 부활주일과 성례주일을 맞아 1, 2, 3부 예배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고, 예배 후에는 부활절 달걀을 전 교인에게 나눠주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세례 및 입교식이 있었다.

세례 : ①남궁유(여/HI청년공동체) ②박규리(여/HI청년공동체) ③박아일린예린(여/중등부) ④손민기(남/수유구역) ⑤유병수(남/영등포구로구역) ⑥윤정임(여/중구구역) ⑦이낙원(남/쌍문구역) ⑧임삭훤(남/중국어예배반) ⑨최은비(여/신혼부부구역)

입교 : ①오한결(남/중등부)



성찬 예식



부활절 달걀을 나눠드리는 아이들

예배는 마가복음 16장 1~8절 성경봉독을 김숙영 권사(1부), 박창숙 권사(2부)가, 이후 이만희 장로(1부), 류관식 장로(2부)의 기도가 이어졌다. 연못골 찬양대(1부) '부활의 소식'(김민아 곡), 부용 찬양대(2부) '온 교회여 깨라'(Joseph M. Martin 편곡), 게일 찬양대(3부) '살아 계신 주(B. Gaither 곡)' 찬양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가 '빈 무덤으로 나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고현수 기자

부활절 축하음악예배





4월 5일(주일) 오후예배는 연못골찬양대(1부 찬양대)가 주관하는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로 드렸다. 연못골찬양대 대장 장동철 장로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해 찬송가 167장(즐겁도다 이 날)을 부른 뒤 총무 황보성목 안수집사의 기도와 부총무 박영란 권사의 말씀 봉독(마태복음 28:5-10) 후 박주안 목사가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순서에서는 '나의주 나의 예수님'(김민아 곡)이라는 주제로 특별 찬양이 있었다. 지휘 진화신 집사, 오르간 신기루 집사, 피아노 이지원 권사, 내레이션 이건희 목사가 함께하였다./ 진상협 기자



[특별 찬양]

1. 예수, 우리왕
2. 주는 그리스도시오(Ten.정상운)
3. 십자가로 가까이(4중창: Sop.김다은, Alto.심승효, Ten.정상운, Bar.김상백)
4. 아름답다 예수여(Alto.심승효, Bar.김상백)
5. 부활의 소식
6. 기쁨의 소식 전하세

다문화선교팀 세미나





4월 4일(토) 국내선교부(부장 이호진 장로) 다문화선교팀(팀장 허선미 권사)이 "다문화선교팀 세미나"를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진행하였다. 다문화선교팀과 한국어교실 26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 박동진 기자

“오감으로 만나는 정동길 봄: 순례”





4월 11일(토) 새가족부(부장 심현숙 장로)와 세례문답부(부장 박현숙 권사) 주관으로 정동순례길 걷기가 진행되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모임장소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 마당으로 모였다. 3시간 30분~4시간 정도 소요된 이날의 코스는 다음과 같다.

1.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크립트, 본당, 사제관, 양이재, 세실마루) 2.덕수궁 사잇길(영국대사관, 덕수궁 후원과 석어당, 살구나무, 대사관 후문, 돌담길) 3.구세군사관학교(구세군 박물관) 4.왕의 길(아관파천길, King's Road, 한반도내 첫 세례지, 선원전 터) 5.구 러시아공사관(러시아공사관, 함춘원, 옛 CCC빌딩) 6.여한중화한성교회(회화나무, 정동아파트, 경향빌딩, 돈의문터, 창덕여중, 불란서공사관 터) 7.이화학당(사주문, 손탁호텔 터, 심슨홀-박물관, 한양도성 성벽, 유관순 동상, 보구여관터) 8.중명전(북장로회선교부지, 알렌 사택 터, 언더우드사택 터, 정동교회 터, 을사늑약, 헤이그 밀사) 9.정동제일교회(북감리회선교부 터, 시약소, 벧엘예배당 아펜젤러와 탁사 동상, 역사전시실) 10.배재학당 동관(향나무,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근대교육 및 근대스포츠 발상지) / 진상협 기자

제4여전도회 & 제4남선교회의 봄나들이



4월 11일(토), 제4여전도회(회장 김은희3 집사)와 제4남선교회(회장 김선일 집사)는 새벽기도회 특송 후 여의도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그리츠 레스토랑에서 김주용 위임목사, 오한빛 지도목사와 함께 풍성한 조찬을 나누며 목양의 따뜻함 속에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식사 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강변에서 음료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영육이 새로워지는 쉼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끽했다. 이번 만남이 밑거름이 되어 서로가 지칠 때 든든히 버텨주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나가길 간절히 기도한다.

/ 임경선 집사(제4여전도회 서기)



소그룹 하기폰, 오카리나 공장 견학



4월 14일(화) 소그룹 하기폰 오카리나(총무 천재윤 집사)는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노블 오카리나 공장'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교회에 모여 계대윤 목사의 기도 후 17명은 오전 9시에 출발했다. 노블 오카리나 대표의 설명으로 점토부터 완성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듣고 보고, 개인악기들 수리와 소독을 맡겼다. 한정식으로 풍성한 점심식사를 하고 근처 수덕사 산책 후 오후 5시30분에 교회에 도착했다. / 이지원 기자

여전도회찬양대 수련회



4월 16일(목) 여전도회찬양대(대장 김인혜 권사)는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리솜포레스트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오전 8시 30분 찬양대실에서 모여 "참 아름다워라" 470장 찬송과 김인혜 대장의 기도 후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이진우 목사의 말씀과 축도를 받고 기쁨으로 출발했다. 도착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 참 아름다운 대자연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었다. 먼저 소중한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마련된 푸짐한 한상으로 식사를 잘 마치고 리솜포레스트의 예쁘게 가꿔진 산책길을 오르며 서로의 모습과 푸르름을 사진에 담고 하늘과 가까운 산장 같은 카페에서 달달한 디저트와 시원한 음료를 나누며 웃음꽃 얘기꽃을 피웠다.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올해도 안전하게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일애 권사(여전도회찬양대 총무)

회계계수팀 야유회





4월 18일(토) 회계계수팀(팀장 오길환 안수집사)은 가까운 강북구에 위치한 우이령 공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가볍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우이령길 중에서 제일 짧은 코스로 돌아 곧바로 식당으로 이동해 보양음식을 먹으며 여유있게 친목을 다졌다. 2부 순서로 카페에 들려 디저트와 차로 대화를 이어갔다. 화창한 봄날에 자연과 함께, 꽃과 함께, 모두가 함께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진상협 기자

트리니티 밴드와 함께하는 찬양예배

4월 19일(주일) 오후예배는 트리니티 밴드가 주관하는 찬양예배로 드렸다.

1.은혜로다 2.주님의 시선 3.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4.실로암 5.슬픔 마음 있는 사람 6.하나님의 열심 7.성령이 오셨네 찬양 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시편 51:10)' 제목으로 이진우 목사가 설교를 했다. 설교 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결단찬양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이지원 기자





제1여전도회, 수련회를 다녀오다



4월 21일(화) 제1여전도회(회장 김경은 권사)는 오전 8시 더 게일홀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몸풀기를 한 후 관광버스와 교회버스에 나누어 회원 63명이 지원교회인 예산 용리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근처의 해미읍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산 용리제일교회 김도훈 목사님의 환영을 받으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1여전도회에서는 '전도용 소금'을 준비해갔는데 전도를 열심히해서 성도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 지역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듬뿍 담아 전달했습니다. 용리제일교회와 1여전도회와는 4년의 역사가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용리제일교회가 자립하고 성도들도 많이 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후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해미읍성으로! 천주교 성지인 해미읍성에 대해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초기 기독교, 천주교와 순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추억을 쌓은 봄나들이였습니다./ 김경은 권사(1여전도회 회장)

연동실버아카데미 봄소풍



4월 22일(수) 연동실버아카데미(원장 정금실 장로)는 학생 54명, 교사 17명이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다산생태공원으로 봄소풍을 다녀왔다. 7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학생들이 경관이 수려한 연꽃언덕에서 풍성한 점심식사를 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잘 조성된 다산생태공원으로 이동했다. 햇살이 아름답고 탁 트인 넓은 곳에서 전소망 전도사와 남미열 권사가 진행하는 노래와 율동을 겸한 전체 레크리에이션과 반별 개인 장기자랑으로 웃음과 탄성을 발하며 친교와 교제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 모두 활력이 넘쳤고,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긴 소풍이라고 말하며 가을소풍을 또 기대했다.

/ 전중희 공로안수집사(연동실버아카데미 교사)

중보기도학교



5월 8일(금) 오후 7~9시, 9일(토) 오전 9시~오후 3시에 본당에서 '연동 중보기도학교'가 열렸다. 중보기도학교는 『세상 중보의 길』(이동원 지음)을 교재로 하여 신동탄지구촌교회 박춘광 담임목사와 박성훈 목사가 총 7개 강의에 대해서 교재 설명 후 중보기도 실습을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특별히 9일(토) 오전 중보기도 실습 때는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큰 원을 만들어 중보기도했고, 또한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긴급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 등 실습에 중점을 두었다. 중보기도팀(팀장 원영숙 권사)은 중보기도학교 후속 프로그램으로 8주간(5월 10일~7월 4일) 기도실습 훈련을 준비하여 요일별 중보기도팀원을 모집했다. 따라서 중보기도학교는 강의 참석, 요일별 기도 개근 출석, 6월·7월 목요기도회 출석에 모두 참여해야 수료하게 된다. 중보기도학교 수료예배는 7월 19일(주일) 3시에 드릴 예정이다. / 양진실 기자

부용찬양대 야유회



5월 17일(주일) 2부예배 후 부용찬양대(대장 강석주 장로)는 포천에 위치한 내촌은혜수련원(수련원장이 부용앙상블 이유선 집사 아버지)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총 55명의 많은 대원들이 참석했고, 대장 강석주 장로가 준비해주신 통돼지 바비큐를 함께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에는 장진욱 집사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홍선희 집사에게 K-pop 댄스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부용찬양대와 가족들이 함께하며 찬양대원 간의 화합과 공동체의 은혜를 더욱 돈독히 다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임수민 집사(부용찬양대 총무)

연못골찬양대 수련회



4월 25일(토) 연못골 찬양대(대장 장동철 장로)는 오전 8시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로 출발해 오후3시까지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정동철 장로의 기도 후에 소프라노 대원인 김옥자 집사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바탕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간증을 전했다. 이후에 은퇴 직분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코자 러시아 목재를 기증받아 시작하게 된 예수마을교회의 변천과정에 대한 교회측의 설명을 듣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교제하였다. 곧이어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마친 후,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와 산책을 곁들인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진상협 기자

권사회 영성수련회



4월 29일(수) 권사회(회장 김선희2 권사)는 김주용 위임목사, 이건희 목사, 회원 50명과 함께 평택시에 위치한 세계성막복음센터로 영성수련회를 다녀왔다.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 도착 후 12시까지 성막에 대한 동영상 시청, 유물과 성화 관람을 비롯해 성막 뜰, 뜰문,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금등대, 분향단, 휘장, 널판, 법궤 등에 대한 성경적 해설을 들으며 성막 체험을 했다. 센터에서 점심식사 후 김선희2 권사의 인도로 김주용 위임목사를 모시고 경건회와 월례회를 진행했다. 월례회에 이어 이건희 목사가 진행하는 즉석 성막 퀴즈대회가 열렸는데, 권사들은 이날 배운 성막 지식을 되새기며 동심으로 돌아가 한바탕 유쾌하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근처 베이커리 카페로 자리를 옮겨 삼삼오오 모여 앉아 빵과 차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오붓한 시간을 이어갔다. 임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애써 준비한 김선희 회장은 “좋은 날씨와 막힘 없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성막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의 자녀로 세상에서 겸손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소감을 말해주었다. 함께여서 더욱 빛났던 하루를 가슴에 새기며, 성막의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 / 박현미 편집장

제125차 새참음악회

4월 30일(목) 총회 문화법인에서 주관하는 새참음악회(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새참' 같은 작은 음악회)가 더 게일홀에서 있었다. 장근희 재즈보컬리스트와 김윤곤 재즈피아니스트는 이날, 한 걸음씩 올라가면(김윤곤 곡), 오버 더 레인보우(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 마중(윤학준 곡), 러브+Cheek to Cheek(B.Kaempfert, I. Berlin 곡), 바람이 부네요(임인건 곡), 팔라델피아(김윤곡곡), 여러분(윤항기 곡) 총 7곡을 들려주었다.

/ 김종은 기자



연주모 상반기 체력단련 모임



5월 2일(토), 주차관리팀(팀장 김성동 안수집사) 연주모 회원들과 안수집사 회원 및 가족들은 강원도 원주 소금산으로 체력훈련과 친교의 시간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교회 봉사로 수고하는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원주 소금산에서 케이블카에 탑승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출렁다리를 걸으며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회원들 간의 친목과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체력훈련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웃고 교제하며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동교회 주차관리팀이 사랑과 섬김 가운데 더욱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종화 장로(연주모 회원)

제40기 결혼예비학교 수료감사예배



5월 2일(토) 평신도학교(교장 강사겸 장로) 새가정부(부장 박승란 권사)가 주최한 결혼예비학교가 7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감사예배를 드렸다. 신혼부부 1커플, 예비부부 4커플이 7주간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았으며, 평신도학교와 5교구 리더들의 축복 속에 풍성한 나눔을 이어갔다.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식부터 진정한 연합의 기술까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토대로 믿음의 가문에 대한 비전을 품고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결혼예비학교'는 금번 40기 과정 개설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강사진이 참여하는 7주간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청년부와 연합하여 사전에 대상자를 모집하는 한편 3040 멘토부부를 섭외하여 매칭하였다. 새가정부에서는 금번 수료자들과 멘토부부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그룹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미래세대 가정들의 양육과 상호 결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 한상정 집사(새가정부 교무)

제40기 결혼예비학교

일정	3월 28일(토, 오후 2시~4시)부터 7주간	
주요 프로그램	주제	강사
	결혼의 설계도	김주용 위임목사
	원가족 이해를 통한 떠남과 연합	계대윤 목사
	서로의 언어로 배우는 부부 사랑의 기술	박현미 권사
	성경적 성 윤리와 친밀한 부부관계	김숙경 강사
	거룩한 싸움의 기술	이명진 공로권사
	슬기로운 신혼부부 경제생활	방영민 장로
	체험활동(도자 십자가 및 그릇 채색)	이은영2 집사

온세대가 함께 주파수를 맞춘 어린이주일 예배







5월 3일, 3부예배는 어린이주일을 맞아 영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온세대예배로 드렸다. 올해는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기획 예배인 '새영 온 에어(On-Air)'로 진행되어 성도들에게 색다른 영적 회복을 선사했다. 이번 예배는 2026년 주제 말씀인 에스겔 11장 19~20절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져 부드럽게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이는 라디오 '마음의 소리', 삶의 갈등을 공감으로 녹이다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대예배실을 라디오 스튜디오로 탈바꿈해 진행된 사연 청취 코너였다. 교우들이 직접 보낸 솔직한 고민들이 소개될 때마다 성도들은 깊은 공감의 박수와 눈물로 화답했다. 친구 관계에서 불편함을 겪는 청소년, 양육관 차이로 대화가 단절된 부부,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자녀를 다그치게 된다는 부모의 사연 등 가정과 일상의 실제적인 갈등들이 가감 없이 다뤄졌다. 패널로 참여한 유치부 민지수 전도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소통했고, 김주용 위임목사는 "사랑의 크기는 같지만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라며 "결론을 서둘러 내기보다 상대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세대가 어우러진 찬양과 축복으로 하나 되다

풍성한 특별 찬양 또한 은혜를 더했다. 어와나(Awana) 어린이들의 생기 넘치는 율동을 시작으로, 주니어앙상블과 주니어콰이어가 창작곡 '그 사랑 우리도 알아요'를 아름답게 합창했다. 게일찬양대 역시 중등부 학생과의 특별 협연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하모니를 선보였다. 특히 이날 처음 출석한 다문화 가정을 온 성도가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은 뜻깊은 감동을 주었다.
김주용 위임목사는 축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며,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이 되라"고 선포했다.
예배 후 전 성도는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됨을 확인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을 이뤄낸 이번 온세대예배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는 복된 이정표가 되었다. / 임재철 기자

어버이주일 경로잔치





5월 10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HI청년공동체가 교회 어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진행했다. 각 예배시간에는 영상으로 교회의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1부 예배가 끝나는 오전 9시부터 3부 예배까지 청년들은 본당 각 문 앞에서 꽃과 함께 교회 어른들께 감사를 전했다. 꽃 머리띠를 쓴 청년들이 수줍게 꽃을 건네면 어른들은 그 꽃을 기쁘게 받는 훈훈한 현장이었다. 오병이어의 집에서는 10시부터 제직분들과 함께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을 준비했다. 식사는 3부예배 후 대접했으며 어르신들은 따뜻한 음식과 함께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 행사를 주관한 HI청년공동체 회장 윤현종 청년은 항상 “청년들을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청년들이 되겠다”는 봉사소감을 전했다. / 남다은 기자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헌신예배



5월 17일(주일) 오후 예배는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제68회기 제5차 순회헌신예배로 드렸다. 제1남선교회 회장 박재천 장로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해 찬송가 219장(주 하나님의 사랑은)을 부른 뒤 연합회 부회장 원종식 장로의 기도와 제2남선교회 회장 이규성 장로의 말씀 봉독(시편 133:1~3)이 있었다. 김형진 목사(문화교회)가 '복을 명하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목사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생의 축복에 대해 강조하며,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 선교와 교육 봉사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강조해주셨다. 이후 제3남선교회 회장 류창현 집사의 봉헌 기도와 연합회 회장 김용옥 장로의 인사와 연합회 총무 최현수 장로의 사업보고로 마쳤다. 예배 후 노환규 안수집사(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특강이 열렸고, 월례회와 저녁 만찬이 이어지며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 송재호 기자

스승의 주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5월 17일(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교회에서 교사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다. 주일학교 본부에서 나와 예배 후 마당에서 영아부~고등부까지 각 주일학교 교사들과 일상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전·현직 교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직접 나누어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박윤신 기자

새가족 소개



최희선1 성도(2교구 성북1구역)



임지은 성도(4교구 이화구역)



손민기 성도(3교구 수유구역)



이유림 성도(3교구 서초방배구역)



김정임 성도(1교구 명륜연건구역)



심현희 성도(2교구 성북2구역)



김춘순 성도(1교구 마포용산구역)



이루라 성도(2교구 용인구역)



이동욱 성도(5교구 아일구역)



정수연2 성도(1교구 마포용산구역)



이승연 성도(2교구 백주년구역)

교회 첫 출석 아기

4월 19일 주일 3부예배




류지안(여, 2025년 12월 1일생)
류승호 성도, 김혜원 성도 딸/ 해피3구역
*김창선 안수집사, 정선영 권사의 외손녀

사랑하는 지안아, 우리 지안이의 교회 첫 출석과 유아세례를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지안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중심이 되셔서 지안이를 지켜주시리라 믿어.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축복해~♡

5월 3일 어린이주일 3부예배




비즐리 태오(남, 2025년 9월 17일생)
비즐리 피터, 권지선 성도 아들/ 분당구역
*권영석 장로, 최경희 권사의 외손자

태오야, 너는 엄마 아빠에게 큰 행복이란다.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길 늘 기도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단다. 사랑해~♡

아동세례 5월 3일 어린이주일 2부예배




기하윤(여, 2016년생)
기형욱 성도, 김효진 성도 딸/ 드림3구역
*김철환 성도, 김경희3 은퇴집사의 외손녀

하윤아, 첫 아동세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할게.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사랑해♥



유아세례 5월 3일 어린이주일 2부예배







나혜나(여, 2025년 9월 2일생)
나종원 집사, 이정주 집사 딸/ 성북1구역
*나현 안수집사, 김숙영 권사의 손녀
*이준일 집사, 김경숙2 권사의 외손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이 작고 귀한 아이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나가 지금과 같이 건강하고 밝고 웃음과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시고 함께해주세요.





류지안(여, 2025년 12월 1일생)
류승호 성도, 김혜원 성도 딸/ 해피3구역
*김창선 안수집사, 정선영 권사의 외손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안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안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해주세요. 엄마 아빠도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지안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최예서(여, 2025년 1월 8일생)
최정열 성도, 임희재 성도 딸/ 해피3구역

주님, 예서를 저희 가정에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으로 예서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서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을 지켜 주시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주옵소서.

2026 탄소제로 녹색교회

연동교회 환경선교사 과정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http://www.me.go.kr

일시 6월 13일~7월 11일 (5주 과정, 매주 토 오전 10-12시)

장소 연동교회 드보라의 방 (205호)

대상 창조세계 회복을 꿈꾸는 연동교회 모든 성도 (선착순 접수)

교육내용

- 6/13 [개강] 기후위기시대, 살림의 영성으로 돌본다는 것
  (유미호 살림 센터장)
- 6/20 창조에서 기후위기까지, 신앙을 다시 묻다
  (윤성련 연세대 객원교수)
- 6/27 기후위기와 AI시대의 생태인문학
  (유영초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 7/4 생활속 유해화학물질
  (김종환 인하대 초빙교수)
- 7/11 [강의 및 워크숍] 연동 초록선언 :
  탄소제로를 향한 우리의 고백과 실천 / 다함께

특전

1. 환경부 인증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2. 연동교회 공식 '환경선교사(지구 정원사)' 임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3,4월 러브릿지"溫(ON)" - "함께하는 봄 나눔"

▶ 3월 21일(토)에 권사회와 4월 25일(토)에 1여전도회와 함께 청년부는 창신동 쪽방촌 80가정을 방문하여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나누었다. 올해부터는 청년부와 각 부서가 함께 연합하여 섬김에 동참하며 더욱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이어가는 중이다. 짧은 방문이지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계절 변화에 맞춘 생필품과 정서적 돌봄도 함께 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과 이웃들 곁을 꾸준히 지키며, 세대를 넘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4월 "[식목일 행사] 모종심기"

▶ 4월 8일(수)에는 연동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종심기 활동을 진행하였고, 신청하여 참석해 주신 어머님 네 분이 일일 교사로 참여하였다. 영아들은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을 직접 심어보며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는 과정을 탐색하고 경험했다. 활동 과정에서 자연의 변화를 발견하며 흥미를 보였고, 물을 주며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생명의 성장 과정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다. 앞으로도 연동어린이집 텃밭을 꾸준한 돌봄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3월부터, "책이랑 노는 월요일"

▶ 3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책이랑 노는 월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업은 강사와 함께 책을 읽는 활동으로 아이들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책 내용에 몰입하였다. 또한 책을 읽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독후활동을 진행하며, 아이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며 즐겁게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체험과 표현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신협 현황

(3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31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부채	합계
	5,970,736	40,425,819	2,460,624	928,449	49,785,628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3,030,512	732,795	59,864	15,962,457	49,785,628

(4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35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부채	합계
	5,982,780	39,993,404	2,534,990	1,244,680	49,755,854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3,516,053	788,306	71,564	15,379,931	49,755,854

목양위원회

■결혼식

- 조하준(조성국 집사, 김진운 집사 아들/HI청년공동체) 군과 길지윤(길정주 장로, 박현숙권사 딸/HI청년공동체) 양 - 4월 11일(토) 오후 3시 30분 JK아트컨벤션 4층 그랜드홀
- 박수진(박강부 성도, 서선숙 집사 딸/분당구역) 양과 최국형(최상철 은퇴장로, 정광순 은퇴권사 아들) 군 - 4월 18일(토) 오후 1시 본교회당
- 강성묵(강병일 집사, 권은경 권사 아들/한신1구역) 군과 시리릭 생차드 양 - 25일(토) 오후 3시 파크 하얏트 방콕
- 황요셉(황석상 안수집사, 김미영 권사 아들/고양구역) 군과 이주연(이용옥 님, 박유미 님 딸) 양 - 5월 5일(화) 오후 1시 더채플 앳 대치
- 안규빈(안문경 집사, 김경원 권사 딸/강서구역) 양과 김동규(김무식 님, 이미종 님 아들) 군 - 5월 16일(토) 오후 3시 40분 상암 월드컵컨벤션 그랜드볼룸
- 이윤재(이호진 장로, 김경미 권사 아들/강서구역)군과 박혜강(박승동 안수집사, 허소윤 권사 딸)양 - 5월 23일(토) 오후 1시 30분 JK 아트컨벤션 4층 그랜드홀

■장례식

- 김영식 은퇴집사(김세록 집사 부친, 이루리 집사 시부/동작관악구역) 별세, 4월 5일 연동동산에 모심
- 신정 목사(김은영 사모 남편, 이연자 명예권사 사위/영등포구로구역) 별세, 4월 14일 연동동산에 모심
- 이희영 명예권사(전희재 집사 모친, 심혜림 집사 시모, 전선민, 전종민 성도 조모/구리남양주양평구역) 별세, 4월 22일 백합의 뜰에 모심
- 김정윤 성도(우순자 명예권사 남편/중구구역) 별세, 5월 3일 연동동산에 모심
- 김학수1 은퇴집사(의정부구역) 별세, 5월 20일 백합의 뜰에 모심
- 박노용 성도(김순자4 집사 남편, 박재풍 성도 부친/낙산구역) 별세, 5월 21일 용인 백암면 선산에 모심
- 송춘수 성도(송정윤 성도 부친/도곡역삼구역) 별세, 5월 22일 연동동산에 모심
- 이경혜1 집사(임순기 공로안수집사 부인, 임윤선 집사, 임종민 성도 모친, 박인천 집사 장모, 김민선 성도 시모/은평구역) 별세, 5월 22일 연동동산에 모심

*4-5월호(626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7월 5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이름: 연락처: 소속:)

2-3월호 '연동컬러링'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김재순(중구구역)-8871



김정하(성북1구역)-0379



성열숙(낙산구역)-0647



여주미(종로5가6가)-9147



정양임 (효제구역)-1101



이예은(유치부)-4816



장선업(성북1구역)-4241

김혜자 (백주년구역)-2812
남상옥 (효제구역)-4380
윤문희 (성북2구역)-9147
이미열(길음구역)-1214

연못골 제 58권 6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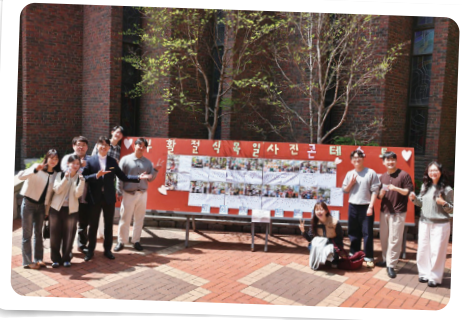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발행일 2026년 5월 24일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윤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종은 남다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부활의 봄이 지금 여기, 피어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을 채우며
함께 걷는 당신이 곁에 있어
이 봄 길이 더욱 은혜롭습니다

4-5월호(626호)